

주체성 및 공존성에 따른 한국인의 주요 가치관 탐색: 20대와 50대 간의 차이를 중심으로*

김도희 정대연*

중앙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는 주체성과 공존성의 두 차원으로 한국인 20대($n = 228$)와 50대($n = 213$)의 주요 가치관을 탐색했다. 연구는 먼저 두 세대가 현재 중시하는 가치를 측정 후, 각 세대에게 상대 세대가 현재 중시하는 것 같은 가치를 질문하였다. 추가로 20대는 자신이 미래 50대에 중시할 것 같은 가치를, 50대는 과거 20대에 중시했던 가치를 나타내었다. 또한 연구는 자아존중감과 삶의 만족도를 질문하여 현재 주체적 가치와 공존적 가치가 그들의 자아존중감과 삶의 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자 했다. 연구 결과, 20대는 현재 상대적으로 주체적 가치를, 50대는 공존적 가치를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두 세대는 서로 상대 세대가 현재 주체적 가치를 중시하지만, 공존적 가치는 중요시하지 않는다고 지각하는 경향이 발견됐다. 게다가, 20대가 미래 50대에 추구할 가치는 현재 50대와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50대가 과거 20대에 추구했던 가치 역시 현재 20대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20대는 현재 공존적 가치가 그들의 자아존중감과 삶의 만족도에 모두 정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만, 50대는 현재 주체적 가치가 그들의 삶의 만족도에만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의의와 한계를 논의하였으며, 향후 연구에 관해서도 제언하였다.

주요어 : 주체성, 공존성, 가치, 자아존중감, 삶의 만족도

* 이 논문은 2022년도 중앙대학교 CAU GRS 지원에 의하여 작성되었음.

† 교신저자: 정대연, 중앙대학교 심리학과, (06911), 서울특별시 동작구 흑석로 47



© 2024, Korean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ical Association.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요즘 한국 사회가 가장 주목하는 이슈 중 하나는 세대 갈등 문제다. 매일 같이 뉴스는 “MZ세대,” “영포티,” “기성세대” 등과 같은 용어를 사용하며 한국 사회에 벌어진 여러 이슈를 세대와 관련지어 주목하고 있고,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에선 “요즘 애들은 자기만 알고 버릇이 없다”라거나 “꼰대들은 자기 방식대로 고집하고 대접만 받고 싶어 한다”와 같이 자기 세대를 기준으로 상대 세대를 질타하는 게시글이 자주 게시되고 있다. 이러한 뉴스 기사나 게시물의 내용은 주로 특정 세대를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으로 상대 세대를 향해 “대체 왜 그럴까?”라는 의문이 반영되어 있으며, 심한 경우 자기 세대와 상대가 완전히 다르고 상대 세대의 삶의 방식에 큰 문제가 존재한다고 비난하기도 한다.

이러한 세대 갈등은 사실 대한민국만의 문제는 아니며, 다른 국가들도 흔히 경험하는 오랜 사회 현상이다(e.g. Bennett, Beehr, & Ivanitskaya, 2017; Esping-Andersen & Sarasa, 2002; Preston, 1984; Zemke, Raines, & Filipczak, 1999). 다만, 현재 한국 사회에서 세대 갈등은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와 맞물림에 따라 사회경제적인 정책에 혼선을 일으키는 것뿐만이 아니라(이윤경 외, 2020; 황선재, 2022), 한국인들의 대인관계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실제로 최근 한국리서치(2023)는 윗세대와 아랫세대는 2년 전에 비해 서로 간의 대화와 협업이 어려워지며 친근감 역시 느끼기 어렵다는 답변이 증가하였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해당 보고서는 10대 청소년과 60대 이상의 성인이 느끼는 세대 차이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세대 차이가 20대와 50대의 관계 사이에서 특히나 가장 크게 체감되고 있음을 제시했다.

게다가, 이러한 세대 간의 ‘서먹서먹한’ 관계는 직장에서도 구체적으로 발견됐는데, 대한상공회의소(2020)는 이것이 윗사람과 아랫사람 간의 세대 차이에서 기인할 수 있음을 암시하였다. 해당 보고서는 20대에서 50대 직장인들을 대상

으로 세대 갈등 문제를 분석했는데, 직장인 63.9%가 세대 차이를 느끼며 그러한 세대 차이는 윗세대로 갈수록 심화하는 양상이 나타났다고 한다. 특히, 해당 보고서는 “개인주의적인” 아랫세대와 “집단주의적인” 윗세대가 ‘정시 퇴근,’ ‘업무지시,’ ‘회식’과 같은 업무수행 방식 및 조직문화에서 다른 견해를 보임에 따라, 세대 차이가 곧 개인 간의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제기하였다(대한상공회의소, 2020).

위와 같은 자료들에 근거하였을 때, 현재 한국 사회는 세대 차이에 따른 세대 갈등을 크게 체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상응하여 현재 한국 사회 내 윗세대와 아랫세대는 서로가 공통점은 없고 완전히 다른 집단이라고 믿으며, 서로를 구분 짓고 세대 간의 차이만을 강조하는 데에 점점 익숙해지는 듯하다. 다만, 세대 차이를 빌미로 자기 세대와 상대 세대와의 관계 및 소통을 포기하고 단절하는 방식은 한국의 사회, 정치, 경제뿐만 아니라, 직장이나 가족 등과 같은 대인관계 전반에서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쳐 현대 한국 사회가 빠른 시일 내 해결해야 할 문제인 것으로 보인다(강량, 2014; 남순현, 2004; 설진선, 김수연, 2020).

그런데 이러한 시급성에도 불구하고, 세대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세대 차이(구자숙, 한준, & 김명언, 1999; 박재홍, 1995; 은기수, 이윤석, 2005; 정순돌, 정주희, 김미리, 2016; 조성남, 윤옥경, 2000)를 심리학적으로 탐색한 연구(e.g. 김명언, 김의철, 박영신, 2000; 김의철, 박영신, 김명언, 이건우, & 유호식, 2000)는 그리 많지 않은 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세대에 대한 여러 정의 중 ‘생애 단계로서의 세대(Kertzer, 1983)’에 주목하고 한국인 20대와 50대를 대표적으로 선정하여 이들 간의 세대 차이를 생애 발달적으로 이해하고자 했다. 특히 본고는 세대 차이를 가치(value)로 측정하는데, 구체적으로 Big Two 두 차원인 주체성(agency)과 공존성(communion)을 통해 이들이 추구하는 가치가 상이한지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본고는 20대와 50대가 현재 중시

하는 가치 외에도, 20대와 50대가 현재 상대 세대의 가치를 어떻게 지각하는지 알아보면서 서로를 향한 인식을 실증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그다음, 20대의 현재 가치를 50대의 과거 가치와, 50대의 현재 가치를 20대의 미래 가치와 비교하면서 이들이 느끼는 세대 차이는 사실상 발달적 원인에 근거할 수 있다는 점 역시 제시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연구는 현재 주체적 가치와 공존적 가치가 20대와 50대 각 세대의 자아존중감과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지 측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두 세대가 현재 중시하는 가치와는 별개로, 그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가치는 무엇인지, 더 나아가, 세대 갈등 맥락에서 총체적으로 그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주체적 가치와 공존적 가치를 추구하면 좋을지 논의하였다.

생애 단계로서의 세대

세대(cohort)의 개념은 여러 사회과학 연구 전반에 걸쳐 사용되고 있지만, 그에 대한 정의는 연구 분야나 학자마다 조금씩 차이가 존재한다. Kertzer(1983)는 세대 개념이 친족혈통(kinship descent)으로서의 세대(부모-자녀), 코호트(cohort)로서의 세대(X세대, MZ세대), 생애 단계(life stage)로서의 세대(노년 세대, 청년 세대), 그리고 특정 역사적 시기(period)에 따른 세대(전후세대)로 총 4가지로 분류될 수 있음을 제시했다.

본 연구가 가장 관심 가지고 있는 관점은 생애 단계 혹은 생애 주기(life cycle)에 따른 세대 구분이다. 해당 관점은 Erikson(1950, 1982)의 심리·사회적 발달 이론(psychosocial development theory)과 Levinson(1978, 1986)의 인생 사계절 이론(four seasons of life theory)에서 반영되고 있다. 두 이론 모두 규범적 위기(normative crisis) 모델에 해당한다. 규범적 모델은 특정 연령에 해당하는 모든 개인 간에는 서로 거의 동일한 심리적 그리고 사회적 변화를 경험하며, 각 시기에 달성되어야만 하는 규범적 과업을 잘 수행해야

다음 단계의 발달이 원활히 진행된다고 가정한다(정옥분, 2013; 한성열, 2019).

Erikson(1982)은 0세부터 1세까지를 영아기(early infancy), 1세부터 3세까지를 아동 초기(toddler), 3세부터 6세까지를 아동 중기(early childhood), 6세부터 12세까지를 아동 후기(middle childhood), 12세부터 18세까지를 청소년기(adolescence), 19세부터 40세까지를 성인 초기(young adulthood), 40세에서 60세까지를 성인 중기(middle adulthood), 60세 혹은 65세 이상부터는 성인 후기(older adulthood)로 인간의 전 생애를 8단계로 구분했다. 이와 유사하게 Levinson(1978)은 0세부터 17세까지를 아동·청소년기(preadulthood), 22세부터 40세까지를 성인 초기(early adulthood), 45세부터 60세까지를 성인 중기(middle adulthood), 그리고 65세 이후로는 성인 후기(late adulthood)로 인간의 생애를 4단계로 분류했다.

본 연구의 연구 대상인 20대와 50대는 Erikson(1950, 1982)과 Levinson(1978, 1986)에 따르면 각자 성인 초기와 성인 중기에 해당한다. Levinson(1978)은 성인 초기의 개인은 신체적으로도 가장 건강하고 능력도 최고치에 달하며, 사회 속에서 자신의 자리를 확립하고자 애를 쓴다고 묘사했다. 하지만 제아무리 정력적인 성인 초기라 하더라도 해당 단계의 개인은 자기 능력, 직업, 지위 등 만에 관심 가져선 안 되는 것으로 보인다. Erikson(1982)에 의하면, 성인 초기의 개인은 청소년기에 확립된 자신의 정체성(identity)을 바탕으로 타인과 본격적인 친밀감(intimacy)을 형성하여 친구, 부모, 그리고 배우자까지 타인과 깊이 연결되는 삶을 지향해야만 한다. 만약 이러한 친밀감의 과업이 실패된다면, 해당 개인은 사람과의 관계를 멀리하거나 친밀감이 없는 성적(sexual) 관계 또는 정서적 안정감이 없는 관계를 추구함에 따른 고립감(isolation)과 외로움(loneliness)을 경험할 수도 있다(Erikson, 1959; Muuss, 1996).

Levinson(1978)은 개인이 성인 중기가 되었을 때 자신이 더 이상 젊은 세대가 아닌 중년 세대

임을 확인하며, 이전만큼 자신이 생물학적으로 활기차지 않다는 것을 인지하게 된다고 보았다. 그렇기에 해당 시기의 개인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자신이 무엇을 성취해 왔는지, 또는 사회에 얼마나 공헌을 해왔는지 다시금 확인하며, 자신의 성공과 실패에 대해서 재평가하고 앞으로의 인생 계획(재혼, 재취업)을 새롭게 창조하게 된다고 한다(Erikson, 1982; Levinson, 1978). 이때 성인 중기의 개인은 이전 단계의 친밀감을 바탕으로 타인을 양육 및 교육하는 생산성(generativity)을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게 된다(Erikson, 1982). 구체적으로 Erikson(1982)은 해당 단계의 개인이 자신의 가족과 자녀를 돌보는 데 책임감을 가지고 사회적으로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알려줄 수 있는 진정한 권위자(authority)로서 거듭나 다음 세대를 이끌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만약 이 시기의 개인이 타인보다 자신을 중시하여 생산성의 과업을 달성하지 못한다면, 개인은 직업이나 대인관계 영역에서 알던 방식만을 고집하여 더 이상의 발전은 이룩할 수 없는 침체감(stagnation)을 경험할 수도 있게 된다(Erikson, 1959; Muuss, 1996).

이처럼 Erikson(1950, 1982)과 Levinson(1978, 1986)은 특정 시기와 연령을 바탕으로 성인의 생애 단계를 성인 초기와 성인 중기로 분류하였고, 두 단계가 생물학적으로나 심리적인 차이가 있을지언정 결국 각각의 단계에서 타인 지향적인 친밀감과 생산성의 과제를 완수해야 함을 제시했다(Erikson, 1950). 하지만 이러한 타인과의 연결감(connectedness)은 사실상 개인의 건강한 개성(individuality) 및 정체성을 기반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Beaumont & Pratt, 2011; Erikson, 1982). 분명 성인 초기와 성인 중기의 개인 모두 자기(self) 개념에 '나(I)'를 넘어 '우리(We)'를 포함할 것인지 고민한다(Erikson 1968; Rogers, 2018). 하지만 이와 동시에, 그들은 독립적인 개인으로서 자신의 신념이나 가치가 무엇인지 고민하여 명확한 자기감(sense of self)을 가져 자신이 어떤 능력을 발휘하여 사회에 이바지

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만 진정으로 타인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Côté & Levine, 2002; Erikson, 1968, 1982; Levinson, 1978). 그리하여 본고는 성인 초기와 성인 중기의 과업이 공통적으로 공존적인 특성을 보이는 한편, 이들이 주체적인 작업과도 결코 분리되고 있지 않다고 바라보았다(Hassan & Bar-Yam, 1987).

가치

가치(value)에 대한 정의는 학문이나 관점에 따라 너무 다양한 나머지 그것에 대한 뜻은 좀처럼 명확하지 않은 편이다(Rokeach & Ball-Rokeach, 1989). 일반적으로 가치는 개인에게 삶의 기본적인 지침으로써 작용한다. 구체적으로 사람들은 자신의 가치에 따라서 자기 행동을 결정하고 외부 사건과 타인을 판단하며, 자신의 가치를 바탕으로 자기에 관해서도 설명하고 평가하고자 한다(Kluckhohn, 1951; Rokeach, 1973; Schwartz, 1992, 1999). 특히 사람들은 여러 가치 중 자신에게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우선순위를 형성한다(Schwartz, 1992, 1994). 그러한 가치 우선순위(value priorities)는 개인에게 중요하면 중요할수록 그 가치에 따른 특정 행위가 쉽게 촉발되는데(Rokeach, 1973), 이로 인해 가치는 인간 동기에 대한 인지적 표상(cognitive representation)으로 이해되기도 한다(Rokeach, 1973; Schwartz, 1992; Schwartz & Bilsky, 1987, 1990).

이러한 가치는 연령에 따라 추구되는 바가 달라지는 것으로 보인다. 2004년 유럽 사회조사(European Social Survey, ESS)와 2005년 세계가치조사(World Values Survey, WVS)는 Schwartz(1992)의 이론을 활용해 가치관 조사를 진행했다. 연구 결과, 두 연구는 공통적으로 개인이 연령이 상승할수록 자애(benevolence), 보편주의(universalism)와 같이 공존적 가치로 이해되는 자기 초월 가치(self-transcendence value)를 추구하며, 상대적으로 자기 주도성(self-direction), 쾌락(hedonism)과 같이 주체적 가치로 이해되는 자기 증진 가치

(self-enhancement value)는 덜 중시하는 패턴을 발견했다(Ritter & Freund, 2014; Schwartz, 2007). 비슷하게, Brandstadter, Rothermund, Kranz, 그리고 Kuhn(2010)은 성취(achievement), 권력(power)과 같이 주체적 차원으로 이해되는 외현적-도구적(extrinsic-instrumental) 가치와 친밀감(intimacy), 이타심(altruism)과 같이 공존적 차원으로 이해되는 내현적-가치합리적(intrinsic-value-rational) 가치를 측정했는데, 연령이 높을수록 외현적-도구적 가치보다 내현적-가치합리적 가치를 점차 중시하는 현상을 보고했다.

그런데 Trapnell과 Paulhus(2012)는 지금까지 실시된 여러 가치 연구들(e.g. Richards, 1966; Roberts & Robins, 2000; Schwartz, 1992)이 결국 주체성과 공존성의 차원을 간접적으로 측정해 오고 있음을 발견했다. 그들은 Schwartz(1992)의 보편적 가치 이론(Theory of Basic Human Values)을 대표적인 예시로 들었는데, 해당 이론이 제시하는 10개의 가치를 주체성과 공존성의 차원으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자기 증진(self-enhancement) 가치로 불리는 자극(stimulation), 쾌락주의(hedonism), 권력(power), 성취(achievement), 자기 주도성(self-direction)의 5개가 주체성의 요인으로, 나머지 자기 초월(self-transcendence) 가치로 불리는 안전(security), 자애(benevolence), 보편주의(universalism), 순응(conformity), 전통(tradition)의 가치가 공존성의 요인으로 묶인다는 결과를 보고했다(Trapnell & Paulhus, 2012). 한편, 해당 연구자들은 Big Two 연구 분야에서 한동안 부재했던 가치 도구 '주체적 및 공존적 가치 척도(Agentic and Communal Values, ACV; Trapnell & Paulhus, 2012)'를 개발하기도 하였으며, 본 연구에서 20대와 50대의 가치를 측정하는 도구로써 사용되었다.

주체성과 공존성

과거부터 현재까지 수많은 심리학자는 인간의 특정 행동을 유발하는 기저, 즉 동기가 무엇

인지에 대한 다양한 관점과 이론을 제시해 왔다(e.g. Higgins, 1987; Maslow, 1943; McClelland, 1961; Ryan & Deci, 1985, 2000). 그중 Bakan(1966)은 인간이 흔히 Big Two(Paulhus & Trapnell, 2008)라고 불리는 주체성(agency)과 공존성(communion)의 동기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상정했다. 그는 그의 저서 *The Duality of Human Existence*(1966)에 인간이 한 개인으로서 홀로 활동할 때 무언가를 숙달(master)하는 주체성이 필요하며, 개인이 혼자가 아닌 더 넓은 집단에 소속될 때 타인과 협력(cooperate)할 수 있는 공존성이 요구된다고 주장하였다(Bakan, 1966, pp. 14-15).

다시 말해, 주체성은 분리(separation), 자기 보호(self-protection), 자기 주장(self-assertion), 자기 확장(self-expansion), 자기 통제(self-control), 자기 주도(self-direction)가 특징이며, 공존성은 집단 참여(group participation), 협력(cooperation), 애착(attachment), 연결(connection), 화합(union)과 관련된다(Helgeson, 1994). 따라서 주체적 성향의 개인은 높은 자기 주장성(self-assertiveness), 지배성(dominance), 냉담함(coldness), 적대성(hostility), 언쟁성(quarrelsomeness)을, 공존적 성향의 개인은 높은 수동성(passiveness), 순종성(submissiveness), 따뜻함(warmth), 우호성(agreeableness)이라는 대표적인 행동적 특성을 보이게 된다(Wiggins, 1979; Wiggins & Pincus, 1992). 그런데 이러한 주체성과 공존성은 대체로 서로가 독립적인(independent) 차원이라 인식되고 있다(e.g. Abele et al., 2016; Li, Tseng, Wu, & Chen, 2007; Trapnell & Paulhus, 2012; Wojciszke & Bialobrzeska, 2014). 예컨대, 철수가 유능하고 자기주장을 잘한다는 주체적인 정보를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철수가 타인에게 정직하지 않다거나 친근하지 않을 수 있다는 공존적인 정보를 선불리 판단할 수 없기 때문이다(Dragon et al., 2022).

한편, 주체성과 공존성의 차원은 개인의 관점(perspective), 성별(gender), 그리고 연령(age)의 영향을 받는다. 먼저 관점의 경우 Abele과

Wojciszke(2014)는 이중관점모형(Dual Perspective Model, DPM)을 제시했다. 이들은 개인이 타인과의 사회적 상호작용 내에 행동을 실행하는 행위자(agent)가 되었다가, 상대 행동의 대상이 되는 수신자(recipient)가 되기를 반복하는 관계 내 역동(dynamics)을 발견했다. 이때 DPM에 의하면, 개인이 행위자의 관점을 취할 때 특정 목표를 달성하고 사익(interest)을 추구하고자 자신의 주체성을 강조하지만, 수신자의 관점을 취한다면 상대의 행동이 호의적인지 혹은 악의적인지 파악하고자 타인의 공존성에 민감해진다(Chen, Li, & Wei, 2019). 따라서 개인은 자기 지각(self-perception)과 평가에 있어 자신의 주체적 특성을 잘 떠올리고 이를 기르는 데 관심을 가지지만, 정작 타인에 관해선 상대의 공존적 특성을 살피고 높은 공존성의 사람을 호감형으로 인식하기까지 한다(Abele & Wojciszke, 2007; Dufner & Krause, 2022; Martinescu, Peters, & Beersma, 2022).

성별에 따라서도 주체성과 공존성이 강조되는 정도가 달라지는 것으로 보인다. 일찍이 Bem(1974)의 성 역할 검사지(Bem Sex-Role Inventory, BSRI)와 Spence, Helmreich, 그리고 Stapp(1975)의 성격특성질문지(Personal Attributes Questionnaire, PAQ)는 개인이 남성성(masculinity) 혹은 여성성(femininity)에 가까운지 구분해 내는 항목(item)을 고안해 냈다. 예를 들어, 남성성엔 야망 있는(ambitious), 지배적인(dominant), 독립적인(independent), 경쟁적인(competitive) 등이, 여성성엔 친절함(gentle), 이해심 있는(understanding), 따뜻한(warm), 아이를 좋아하는(likes/loves children) 등의 단어들이 각각의 성별을 대표했다. 이러한 남성성과 여성성의 항목은 각각 Big Two의 주체성과 공존성의 특징과 많은 부분이 유사하며(Helgeson, 1994), 실제로 남성성-여성성, 즉 주체성-공존성의 차원이 성별에 따라 다르게 부각될 수 있음이 꾸준히 제시되어 왔다. 예를 들어, 자기 기술(self-description)에 있어서 남성은 상대적으로 자신을 보다 주체적 특질로, 여성은 자신

을 더 공존적 특질로 소개하는 경향이 발견됐다(e.g. Diehl, Owen, & Youngblade, 2004; Hentschel, Heilman, & Peus, 2019; Wood & Eagly, 2009). 또한 서로를 인식하는 데도 여성은 남성이 주체적이고 남성적이라 바라보고, 남성은 여성이 공존적이며 여성적이라고 지각한다는 결과가 보고됐다(e.g. Abele, 2003; Eagly, Nater, Miller, Kaufmann, & Sczesny, 2020; Hentschel, Heilman, & Peus, 2019; Hsu, Badura, Newman, & Speech, 2021; Suitner & Maass, 2008).

마지막으로 본고가 관심 있어 하는 연령 역시 주체성과 공존성의 상대적 중요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이미 Arnett(2000), Erikson(1950, 1980), Levinson(1978, 1986), Marcia(2002), Srivastava, John, 그리고 Gosling(2003)과 같은 성격 및 발달심리학자들은 Big Two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 없이도 개인이 나이 들에 따라 주체적이기보단 공존적인 특성을 보이며 공존적 과업을 더 지향한다고 소개했다. 실제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Korlat 외(2022)의 연구에서 아이들의 학년이 높을수록 주체적 차원보단 공존적 차원을 바탕으로 자신을 기술한 것이 나타났으며, 성인 초기, 성인 중기, 성인 후기를 대상으로 한 Diehl, Owen과 Youngblade(2004) 연구 역시 개인의 연령이 상승할수록 자신을 주체적 특성보단 공존적 특성과 관련짓는 경향성이 증가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아동기부터 성인 중기의 개인을 대상으로 한 Walker와 Frimer(2015)의 연구도 유사한 패턴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흐름은 연령이 상승할수록 주체적 가치보단 공존적 가치를 중시한다는 앞선 연구들(e.g. Brandstatter, Rothermund, Kranz, & Kuhn, 2010; Ritter & Freund, 2014; Schwartz, 2007)에서도 발견되었는데, 해당 패턴이 발견되는 이유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주체성을 도구적(instrumental) 가치로 여기고 공존성을 궁극적(terminal) 가치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 이해할 수 있다(Walker & Frimer, 2015).

위와 같은 생애 단계로서의 세대, 가치, 그리

고 주체성과 공존성과 관련된 여러 이론 및 기존 연구를 고려했을 때, 본고는 현재 성인 초기의 20대는 공존적 가치보단 주체적 가치를, 성인 중기의 50대는 주체적 가치보단 공존적 가치를 중시하고 있을 것이라 예상하였다. 마찬가지로, 20대가 현재 중시하는 가치는 50대가 과거 20대에 중시했던 가치와, 50대가 현재 중시하는 가치는 20대가 미래 50대에 중시할 가치와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 기대하였다. 또한 20대는 흔히 “개인주의”라고 불림에 따라 적어도 상대 세대인 50대로부터 주체적 가치는 높게 인식될 것이며, 반대로 50대는 “집단주의”라고 일컬어짐에 따라 상대 세대인 20대로부터 적어도 공존적 가치는 높게 지각되리라 추측하였다(대한상공회의소, 2020).

자아존중감

인간은 청소년기에 들어서면서 본격적으로 “나는 무엇일까?”, “나는 얼마나 좋은 사람인가?”,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고, 또 어떻게 될 수 있을까?” 등의 고민을 하기 시작한다(Rosenberg, 1965). 이러한 자기에 대한 고민과 평가는 이후 자신에 대한 우호적이거나 우호적이지 않은 태도를 형성하는데, 이것이 바로 자아존중감(self-esteem)이다(Rosenberg, 1965; Rosenberg, Schooler, Schoenbach, & Rosenberg, 1995). 대체로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며, 자아존중감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실존적(existential)이거나 관계적(relational) 상황에서도 그것을 보호하려는 강한 동기를 지닌 것으로 밝혀졌다(Leary & Baumeister, 2000; Pyszczynski, Greenberg, Solomon, & Arndt, 2004). 높은 자아존중감의 개인은 행복을 자주 경험하고 삶의 역경(failure)도 잘 극복해 내지만(Baumeister & Vohs, 2018), 반대로 낮은 자아존중감의 개인은 우울감을 자주 느끼며 일이나 대인관계에서도 활력을 잃는 경향이 있다(Sowislo & Orth, 2013).

이러한 자아존중감은 연령과 깊은 관련이 있

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Robins, Trzesniewski, Tracy, Gosling 그리고 Potter(2002)는 성별, 사회경제적 지위(socioeconomic status), 민족(ethnicity), 그리고 국적(nationality)과 상관없이 9세부터 90세의 개인을 대상으로 그들의 자아존중감을 측정하는 횡단적 연구를 실시했다. 연구 결과, 자아존중감은 아동기 때 높았다가 청소년기에 감소하고, 성인 초기에 들어서 다시 점진적으로 상승하다가 성인 중기에 가장 높아지며, 다시 성인 후기에 매우 하락하는 패턴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패턴이 확인되는 이유에 연구자들은 명확한 답을 내리진 못했다. 그러나 그들은 개인이 아동기 이후 자기에 대한 현실적인 정보를 수집함에 따라(Harter, 1998) 청소년기 내내 자아존중감이 하락하게 되는 것일 수 있다고 추측하였다. 또한 성인기에 들어서 개인은 생산적인 활동을 수행하고 심리성숙도(psychological maturity)가 높아지면서 자아존중감이 높아지다가(Mitchell & Helson, 1990), 성인 후기에 은퇴에 따른 역할 상실(role loss)과 자신의 과오 및 한계를 직면하여 자아존중감이 매우 하락하게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Bush & Simmons, 1981; Erikson, 1968).

그뿐만 아니라, 자아존중감은 주체성-공존성의 차원과도 연관된다. 일반적으로 주체성과 공존성 모두 자아존중감과 어느 정도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Gebauer, Wagner, Sedikides, Neberich, 2013; Hauke & Abele, 2020). 하지만 Wojciszke, Baryla, Parzuchowski, Szymkow, 그리고 Abele(2011)은 성별이나 연령과 상관없이 공존성 보단 주체성이 개인의 자아존중감을 가장 강력하게 예측하는 변인임을 보고했다. 이러한 결과가 발견되는 이유에 대해선 앞선 DPM(Abele & Wojciszke, 2014)을 통해 설명될 수 있다. DPM에서 언급된 바가 있듯이, 사람들은 타인 지각과 평가에 있어선 상대의 주체적인 정보보단 공존적인 정보를 염두에 두지만, 정작 자기 지각과 평가에 있어선 자신의 공존적 정보보단 주체적 정보를 강조하는 편이다(Abele & Wojciszke, 2014). 따라서 타인 유익적인(other-profitable) 공존

성과 달리 주체성은 자기 유익적인(self-profitable) 특성을 지녔기 때문에(Peeters, 2007), 주체성이야말로 자아존중감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가치 차원에서도 주체성이 자아존중감과 더 긍정적으로 관련 있다는 보고가 존재한다. Lönnqvist 외(2009)는 Schwartz(1992)의 자기 증진 가치가 개인의 자아존중감과 정적 상관관계를 맺고 있지만, 자기 초월 가치는 부적 상관을 보이는 것을 확인했다. 이는 주체적 가치로 이해되는 자기 증진 가치가 개인의 독립성을 강조하고 목표 달성적 성격을 지녀 자아존중감과 양(+)의 관계를 맺을 수 있지만, 공존적 가치로 이해되는 자기 초월 가치는 목표를 추구하기보단 타인을 내세우고 기존의 것을 유지 및 보존하고자 하는 성격이 커 음(-)의 관계를 맺는 것으로 보인다(Lönnqvist et al., 2009). 해당 이론적 배경을 근거로 본고는 20대와 50대가 각자 현재 중시하는 가치와는 상관없이, 모두 현재 공존적 가치보단 주체적 가치가 그들의 자아존중감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 예상하였다.

삶의 만족도

주관적 안녕감(subjective well-being, SWB)은 개인이 자기 삶에 대해서 얼마나 긍정적으로 느끼는지 혹은 얼마나 행복을 경험하는지를 의미한다(Diener, 1984). 이러한 SWB는 정서적인(affective) 측면과 인지-판단적인(cognitive-judgmental) 측면으로 구분되는데, 삶의 만족감(life satisfaction)이 후자에 해당한다(Diener, 1984). 삶의 만족감은 곧 개인이 자신의 삶을 향해 내리는 인지적 평가를 나타내며(Diener, 1984), 삶의 만족도가 높은 사람일수록 더 장수하고 신체적으로 건강하며, 높은 결혼 만족도와 직업 만족도 등을 경험한다(Diener & Seligman, 2002; Erdogan, Bauer, Truxillo, & Mansfield, 2012; Lyubomirsky, King, & Diener, 2005). 삶의 만족도는 자아존중감과 약 .55 수준의 상관관계를 보

이는 것으로 나타나는데(Campbell, 1981), 이는 자아존중감은 자기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인 반면, 삶의 만족도는 더 큰 맥락에서 자기 삶에 대한 평가이기에 서로가 교집합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Diener & Diener, 2005)

그런데 삶의 만족도는 연령과 다소 혼란스러운 관계에 놓인 것으로 보인다. 대개 삶의 만족도는 성인 중기(특히 40대)에 가장 낮아지는 U자형 패턴이 존재한다고 알려져 있다(Blanchflower & Oswald, 2004, 2008). 하지만 일부 연구자들은 이러한 U자형이 없거나, 자아존중감이 특정 연령대까지 상승하고 이후 내려간다는 다른 대안을 제시하기도 하고, 심지어 연령에 따른 삶의 만족도 변화는 거의 없다는 결과를 제시하기도 한다(e.g. Frijters & Beaton, 2012; Joshanloo & Jovanović, 2021; Realo & Dobewall, 2011). 덧붙여 한국에서도 연령이 높아질수록 삶의 만족도가 계속 하락하는 형태를 보여 삶의 만족감과 연령 간의 관계가 과연 U자형일지의 구심이 든다(김성아, 정해식, 2019).

한편, 삶의 만족도는 Big Two 차원에서 주체성보다 공존성을 추구했을 때 높아지는 것으로 보인다. 과거 Helgeson(1984)과 Saragovi, Koestner, Dio, Aubé, 그리고 Jennifer(1997)는 공존적인 특성(trait)이 아닌 주체적인 특성이 개인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했다. 그런데 특성과는 별개로, 최근 연구들은 주체적 가치가 아닌 공존적 가치가 개인의 삶의 만족도에 더 유의하게 기여한다는 것을 밝혀왔다. 예를 들어, Abele(2014)은 앞선 연구와 동일하게 주체적인 특성이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맞지만, 궁극적으로 개인이 주체적 가치가 아닌 공존적 가치를 지향해야만 가장 높은 삶의 만족감을 경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주체적 가치는 외적 보상(extrinsic reward)과 연관되지만, 공존적 가치는 내적 보상(intrinsic reward)을 주기 때문에 만족감이 장기적으로 유지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Abele, 2014; Kasser & Ryan, 1996; Kasser et al., 2014). 같은 맥락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연구한 Lee와 Kawachi(2019) 역시 개인이 주체적 가치로 이해되는 외적 가치(돈, 권력, 학업 성취)를 추구하기보단 공존적 가치와 비슷한 맥락인 사회적 관계(가족, 친구, 이웃)를 중시했을 때 삶의 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본고 또한 20대와 50대가 그들이 현재 중시하는 가치와는 별개로, 현재 주체적 가치가 아닌 공존적 가치가 그들의 삶의 만족도에 유의하게 기여할 것이라 짐작하였다.

개 관

본 연구는 세대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세대 차이(구자숙, 한준, & 김명언, 1999; 박재홍, 1995; 은기수, 이윤석, 2005; 정순돌, 정주희, 김미리, 2016; 조성남, 윤옥경, 2000)를 심리적으로 탐색하는데 목적을 두었고, 이를 위해 Big Two라는 주체성과 공존성의 두 차원을 통해 한국인 20대($n = 228$)와 50대($n = 213$)의 주요 가치관을 분석했다(Paulhus & Trapnell, 2008). 연구가 한국인 20대와 50대를 선정한 것은 두 세대가 직장이나 일상 등에서 서로가 끊임없이 접촉하고 상호작용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간의 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느끼고 세대 차이와 관련해 가장 크게 느끼고 있어 이들의 심리를 분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대한상공회의소, 2020; 한국리서치, 2021, 2023).

먼저, 연구는 두 세대의 현재 가치관을 측정했으며, 그와 별개로 두 세대는 서로 상대 세대의 가치관을 어떻게 지각하는지, 또 그러한 지각이 실제 각 세대가 현재 추구하는 가치와는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았다. 세부적으로, 연구는 각 세대에게 현재 중시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물었고, 추가로 상대 세대는 어떤 가치를 현재 중시하는 것 같은지 질문하였다. 예를 들어, 두 세대 모두 현재 자신이 중시하는 가치("현재 중

시하는 가치: 주체적 가치, 공존적 가치")를 공통적으로 대답하지만, 20대 참가자들은 50대가 현재 중시하는 가치("지각한 50대의 현재 가치: 주체적 가치, 공존적 가치")를, 50대 참가자들은 20대가 현재 중시하는 가치("지각한 20대의 현재 가치: 주체적 가치, 공존적 가치")를 응답하였다. 이후 연구는 해당 응답들을 바탕으로 각 세대가 현재 중시하는 가치 간의 차이를 분석하였고(표 2), 20대가 현재 중시하는 가치는 50대가 지각한 20대의 현재 가치("지각한 20대의 현재 가치")와(표 4), 50대가 현재 중시하는 가치는 20대가 지각한 50대의 현재 가치("지각한 50대의 현재 가치")와 비교하였다(표 5).

다음으로 연구는 각 세대에게 과거에 중시했던 가치 혹은 미래에 중시할 가치를 질문하였다. 해당 질문의 목적은 각 세대가 현재 중시하는 가치가 상대 세대가 과거에 중시했던 혹은 미래에 중시할 가치와 차이가 나타나는지 살펴보기 위함이었다. 만약 이들 간의 차이가 없다면, 이들이 느끼는 세대 차이는 두 세대가 서로 완전히 다른 집단이라서가 아닌, 서로가 놓인 발달 단계가 다르므로 비롯된 것이라 해석할 수 있게 된다. 그리하여 연구에서 20대 참가자들은 미래 50대에 자신이 중시할 것 같은 가치("미래 중시할 가치: 주체적 가치, 공존적 가치")를, 50대 참가자들은 과거 20대에 자신이 중시했던 가치("과거 중시했던 가치: 주체적 가치, 공존적 가치")를 응답하였다. 해당 응답들은 앞서 측정된 각 세대의 상대 세대가 현재 중시하는 가치와 비교됐다. 예컨대, 50대가 과거 20대에 중시했던 가치("과거 중시했던 가치")는 20대가 현재 중시하는 가치와(표 6), 20대가 미래 50대에 중시할 가치("미래 중시할 가치")는 50대가 현재 중시하는 가치와 분석됐다(표 7). 그림 1에서 지금까지의 연구 설계를 간단히 요약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는 현재 주체적 가치와 공존적 가치가 두 세대의 자아존중감(표 8)과 삶의 만족도(표 9)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측정하였다. 이는 각 세대가 현재 중시하는 특정 가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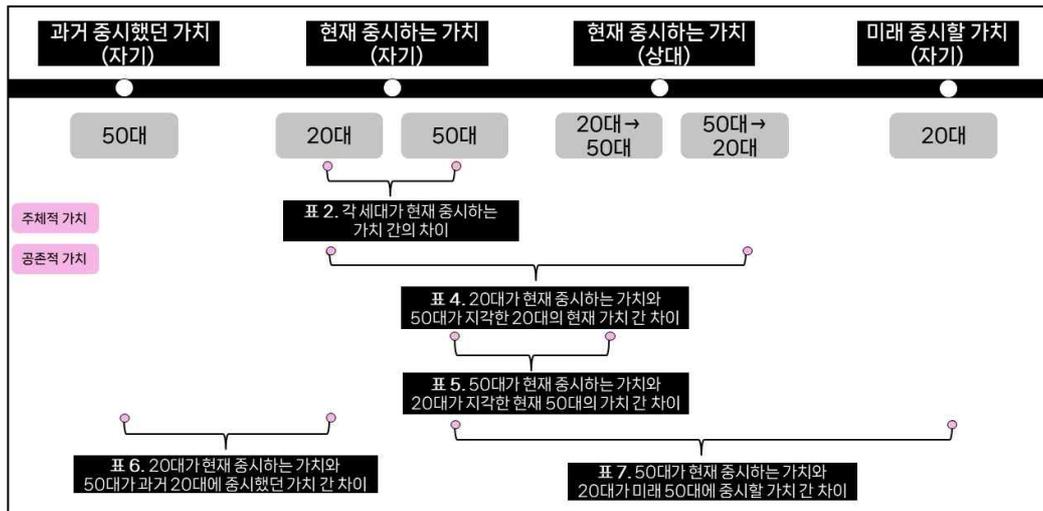


그림 1. 본고의 연구 설계 요약

와는 별개로, 현재 주체적 가치와 공존적 가치 중 결국 그들의 자아존중감과 삶에 더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가치는 무엇인지 알아보는 데 목적이 있었다. 연구는 각 세대가 현재 중시하는 가치(“현재 주체적 가치,” 현재 공존적 가치)가 그들의 자아존중감(“자아존중감”)과 삶의 만족도(“삶의 만족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고자 자아존중감과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인구통계학적 변인인 성별과 직업을 통제했으며(Blanchflower & Oswald, 2004; Boas Shamir, 1986; Robins, Trzesniewski, Tracy, Gosling, & Potter, 2002; Tang, Chen, Zhang, & Mui, 2018), 20대 및 50대 참가자들 모두 자신의 자아존중감과 삶의 만족도를 측정하는 질문에 응답하였다.

방 법

연구 대상자 및 절차

본 연구는 20대(만 20세~29세)와 50대(만 50대~59세) 한국인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연구는 대학 내 생명윤리위원회(IRB)의 승인을 바탕으로 실시됐으며(2023-HR-239), 참가자 모집을 위해 20대와 50대가 자주 방문하는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연구 브로셔를 홍보했다. 연구는 주요 연구 질문과 관련된 응답 외에 별도의 질문을 통해 참가자들의 성별(“귀하의 성별은 어떻게 되십니까?”)과 직업(“귀하의 직업은 어떻게 되십니까?”)에 대한 정보 역시 수집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20대는 228명, 50대 213명으로, 총 441명이 수집됐다. 남녀 성비와 관해선 20대 남성 98명(43%), 20대 여성 130명(57%), 50대 남성 78명(36.6%), 50대 여성 135명(63.4%)이었다. 직업에 대한 비율은 20대 비직장인 88명(39%), 직장인 140명(61%), 50대 비직장인 86명(40%), 직장인 127명(60%)이었다. 설문 종료 후, 성실하게 응답한 참가자 전원에게 보상으로 소정의 커피 쿠폰을 지급하였다. 수집된 연구 자료는 SPSS 28.0을 통해 결과가 분석되었다.

측정 도구

주체적 가치와 공존적 가치

연구는 참가자들의 주체적 가치와 공존적 가치를 측정하고자 Trapnell과 Paulhus(2012)가 제작한 주체적 및 공존적 가치 척도(Agentic and Communal Values: ACV)를 한국어로 번안하여 사용했다. 번안 과정에서 먼저 연구자가 해당 척도를 한국어로 번안하였고, 이후 이중 언어자인 심리학 석사 및 박사 학생 2인의 역번역 및 검토가 이루어졌다. 해당 척도는 총 24문항으로 구성되며, 12문항은 주체적 가치(예: 부, 영향력, 성취, 권력, 자율성 등), 나머지 12문항은 공존적 가치(예: 용서, 신뢰, 겸손, 조화, 전통 등)를 측정했다. 문항은 개인의 인생에서 각 가치에 대한 중요성을 9점 척도(1= 전혀 중요하지 않다, 9= 매우 중요하다)로 질문하며, 주체적 및 공존적 가치에 대한 점수는 각각 12문항씩 평균 내어 산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세대에 따라 해당 척도를 일부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20대와 50대 참가자 모두는 공통으로 '현재 중시하는 가치("얼마나 현재 중요하게 추구하고 있는 가치인가?")'를 응답했다. 그다음 세대를 구분하여, 20대는 '지각한 50대의 현재 가치("현재 50대가 얼마나 중요하게 추구하고 있을 가치인가?")'와 '미래 50대에 중시할 가치("50대가 되었을 때 얼마나 중요하게 추구하고 있을 가치인가?")'를 나타내었다. 비슷하게, 50대는 '지각한 20대의 현재 가치("현재 20대가 얼마나 중요하게 추구하고 있을 가치인가?")'와 '과거 20대에 중시했던 가치("20대였을 때 얼마나 중요하게 추구했던 가치인가?")'를 나타내었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20대가 현재 중시하는 주체적 가치는 cronbach's $\alpha = .91$ 이며, 현재 중시하는 공존적 가치는 cronbach's $\alpha = .92$ 였다. 50대가 현재 중시하는 주체적 가치는 cronbach's $\alpha = .87$ 이고, 현재 중시하는 공존적 가치는 cronbach's $\alpha = .90$ 이었다. 또한 지각한 현재 20대의 가치는 cronbach's $\alpha = .94$, 지각한 50대의 현재 가치는 cronbach's $\alpha = .92$ 이었다. 마지막으

로, 20대가 미래 50대에 중시할 가치는 cronbach's $\alpha = .92$, 그리고 50대가 과거 20대에 중시했던 가치는 cronbach's $\alpha = .92$ 로 보고되었다.

자아존중감

참가자들의 자아존중감을 측정하기 위해 Rosenberg(1965)가 개발하고 전병재(1974)가 번안한 자아존중감 척도(Self-Esteem Scale)를 사용했다. 해당 척도는 총 10문항으로 구성되며, 5문항은 참가자들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을, 나머지 5문항은 부정적인 감정에 대해 측정했다. 긍정적인 감정에 대한 예시 문항은 "나는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가 있고, 부정적인 감정에 관해선 "나는 가끔 내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느낌이 든다"가 있었다. 참가자들은 각 문항이 자신을 얼마나 잘 나타내고 있는지 4점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4= 매우 그렇다)로 응답했으며, 부정적인 감정과 연관된 문항은 역점수로 계산되었다. 본 연구에서 현재 20대의 자아존중감은 cronbach's $\alpha = .87$, 현재 50대의 자아존중감은 cronbach's $\alpha = .78$ 로 보고됐다.

삶의 만족도

해당 연구는 참가자들의 삶의 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해 Diener, Emmons, Larsen, 그리고 Griffin(1985)이 개발하고 조명환과 차경호(1998)가 번역한 삶의 만족도 척도(The Satisfaction with Life)를 사용했다. 해당 척도는 개인의 삶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수준을 평가하며, 총 5문항으로 이루어졌다. 문항에 대한 일부 예시는 "전반적으로 나의 삶은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삶에 가깝다"나 "나는 나의 삶에 만족한다" 등이 있다. 참가자들은 각 문항에 대해 7점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7= 매우 그렇다)로 응답하였다. 본고에선 현재 20대의 삶의 만족도는 cronbach's $\alpha = .90$, 그리고 현재 50대의 삶의 만족도는 cronbach's $\alpha = .89$ 로 나타났다.

결 과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본 연구를 위해 사용된 주요 변인들의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그리고 상관분석 결과를 표 1에 제시하였다. 주요 변인들의 왜도는 절대값 3보다 작고 첨도는 절대값 10보다 작아 정규성 가정을 충족한다고 보았다(Kline, 2005).

주요 변인들을 대상으로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20대와 50대 모두에서 주체적 가치는 또 다른 주체적 가치들과, 공존적 가치는 또 다른 공존적 가치들과 더 강한 상관을 보였다. 또한 본고에서 주체적 가치와 공존적 가치 간 모든 정적 상관관계가 중간 정도 이상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주요 종속변수 간의 상관성은 본 연구에서 시행한 다변량 분산분석(MANOVA)이 독립표본 t 검정보다 적합한 분석 방법이라는 것을 보여주었다(Tabachnick & Fidell, 2007).

본고는 현재 주체적 가치-공존적 가치와 자아존중감, 또 현재 주체적 가치-공존적 가치와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성에 주로 관심을 가짐에 따라 두 세대의 현재 주체적 및 공존적 가치가 자아존중감과 삶의 만족도와 어떠한 상관성을 보이는지를 특히 주목하였다. 자아존중감의 경우, 20대와 50대 모두 현재 주체적 가치와 공존적 가치가 그들의 자아존중감과 정적 상관을 보였다. 이는 주체성과 공존성 모두 자아존중감과 어느 정도 정적으로 연관된다는 선행 연구(e.g. Gebauer, Wagner, Sedikides, Neberich, 2013; Hauke & Abele, 2020)와 비슷한 양상으로 드러났다. 삶의 만족도의 경우, 20대는 현재 주체적 가치보단 공존적 가치와, 50대는 현재 공존적 가치보단 주체적 가치와 더 강한 상관관계를 지닌 것으로 보였다. 해당 50대의 결과는 공존적 가치가 삶의 만족도와 관련성이 높다는 기존 연구(e.g. Abele, 2014)와는 다르게 나타났다.

각 세대가 현재 중시하는 가치 간의 차이

한국인 20대와 50대가 현재 중시하는 가치 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세대에 따라 현재 주체적 가치와 공존적 가치에서 차이가 나타나는지 다변량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는 표 2에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세대에 따라 현재 주체적 가치와 공존적 가치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었다[Pillai's Trace = .11, $R^2(438) = 27.93^{***}$, $p < .001$, $\eta^2 = .11$]. 구체적으로, 현재 주체적 가치에서 20대의 평균($M = 6.69$)이 50대의 평균($M = 6.47$)보다 높았고($R^2(438) = 4.13^*$, $p = .043$), 공존적 가치에서는 50대의 평균($M = 7.10$)이 20대의 평균($M = 6.60$)보다 유의하게 높았다($R^2(438) = 22.73^{***}$, $p < .001$).

연구는 추가로 20대와 50대가 현재 중시하는 가치 간의 차이가 12개의 주체적 가치와 12개의 공존적 가치 내에서 각각 어느 가치로부터 비롯되는지 자세히 알아보았다. 이를 위해 다변량 분산분석을 실시했으며, 세대에 따라 현재 중시하는 12개의 주체적 가치[Pillai's Trace = .11, $R^2(428) = 4.21^{***}$, $p < .001$, $\eta^2 = .11$]와 12개의 공존적 가치[Pillai's Trace = .13, $R^2(428) = 5.19^{***}$, $p < .001$, $\eta^2 = .13$]에서 유의한 차이가 발견됐다. 해당 결과는 표 3에 구체적으로 정리하였다. 분석 결과, 주체적 가치 부문에선 경쟁 상대를 이기고 정상에 오르는 것을 뜻하는 '우위(superiority)[$R^2(428) = 18.93^{***}$, $p < .001$]와 모험을 쫓고 위험부담을 감수하며 흥분되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하는 '자극(excitement)[$R^2(428) = 20.54^{***}$, $p < .001$]에서 세대 간 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났는데, 20대가 50대에 비해 현재 해당 두 가치를 더 중시하는 양상이 나타났다. 또한 공존적 가치 부문에선 자기 가족이나 자국의 가치를 존중하는 것을 의미하는 '전통(tradition)[$R^2(428) = 32.34^{***}$, $p < .001$]과 타인에게 감사할 줄 알고 자신을 낮출 줄 아는 것을 가리키는 '겸손(humility)[$R^2(428) = 27.57^{***}$,

표 1.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변수명	상관분석										
	1	2	3	4	5	6	7	8	9	10	
평균(표준편차)	0.57(0.50)	0.61(0.49)	6.69(1.21)	6.6(1.21)	6.63(1.12)	7.02(0.98)	6.86(0.97)	6.79(1.18)	30.96(5.80)	23.47(6.08)	
침도	-1.94	-1.79	0.48	1.23	0.35	1.72	0.43	1.07	0.52	0.42	
왜도	-0.29	-0.42	-0.57	-1.00	-0.62	-0.87	-0.71	-1.00	-0.79	-0.59	
1. 성별	-										
2. 직업		-									
3. 주체적 가치			-								
4. 공존적 가치				-							
5. 주체적 가치					-						
6. 공존적 가치						-					
7. 주체적 가치							-				
8. 공존적 가치								-			
9. 자아존중감									-		
10. 삶의 만족도										-	

변수명	상관분석										
	1	2	3	4	5	6	7	8	9	10	
평균(표준편차)	0.63(0.48)	0.60(0.49)	6.47(1.08)	7.10(1.00)	6.60(1.20)	6.69(1.16)	6.86(1.15)	6.11(1.60)	31.08(4.42)	22.66(6.25)	
침도	-1.70	-1.86	-0.31	2.89	-0.18	0.94	-0.04	-0.23	0.58	-0.05	
왜도	-0.56	-0.40	-0.50	-1.08	-0.64	-0.76	-0.45	-0.67	-0.62	-0.62	
1. 성별	-										
2. 직업		-									
3. 주체적 가치			-								
4. 공존적 가치				-							
5. 주체적 가치					-						
6. 공존적 가치						-					
7. 주체적 가치							-				
8. 공존적 가치								-			
9. 자아존중감									-		
10. 삶의 만족도										-	

성별은 남성 = 0, 여성 = 1로 코딩함.
 직업은 비직장인 = 0, 직장인 = 1로 코딩함.
 $p < .05$, $** p < .01$, $*** p < .001$

표 2. 각 세대가 현재 중시하는 가치 간 차이

	20대 (n = 228)	50대 (n = 213)	F	η^2
	M(SD)	M(SD)	F(2, 438) = 27.93***	.11
현재 주체적 가치	6.69(1.21)	6.47(1.08)	F(2, 438) = 4.13*	.01
현재 공존적 가치	6.60(1.21)	7.10(1.00)	F(2, 438) = 22.73***	.05

*p < .05, **p < .01, ***p < .001

표 3. 각 세대가 현재 중시하는 12개의 주체적 가치와 12개의 공존적 가치 내 차이 분석

	가치명 (가나다순)	20대 (n = 228)	50대 (n = 213)	F	p	η^2
		M(SD)	M(SD)	4.21***	<.001	.11
주체적 가치	권력(power)	6.19(2.12)	6.00(1.80)	1.11	.291	.00
	부(wealth)	7.31(1.42)	7.41(1.42)	.56	.453	.00
	성취(achievement)	7.13(1.51)	7.03(1.37)	.57	.452	.00
	야망(ambition)	6.51(1.67)	6.29(1.62)	2.00	.158	.00
	영향력(influence)	6.41(1.86)	6.67(1.64)	2.30	.130	.01
	우위(superiority)	6.46(1.73)	5.69(1.97)	18.93***	<.001	.04
	능력(competence)	7.06(1.45)	6.79(1.51)	3.50	.062	.01
	인정(recognition)	6.58(1.69)	6.41(1.78)	1.11	.292	.00
	자극(excitement)	6.34(1.85)	5.51(2.00)	20.54***	<.001	.04
	자율성(autonomy)	6.98(1.54)	6.89(1.46)	.44	.506	.00
	지위(status)	6.40(1.74)	6.21(1.92)	1.16	.282	.00
	쾌락(pleasure)	6.91(1.46)	6.73(1.58)	1.54	.215	.00
공존적 가치	가치명 (가나다순)	M(SD)	M(SD)	5.19***	<.001	.13
	겸손(humility)	6.56(1.58)	7.30(1.38)	27.57***	<.001	.06
	공손함(politeness)	6.80(1.48)	7.32(1.37)	14.60***	<.001	.03
	신뢰(trust)	7.10(1.32)	7.54(1.36)	12.11**	.001	.03
	연민(compassion)	6.43(1.64)	6.90(1.51)	9.78**	.002	.02
	용서(forgiveness)	6.32(1.88)	6.79(1.46)	8.47**	.004	.02
	이타심(altruism)	6.51(1.70)	6.91(1.42)	6.90**	.008	.02
	전통(tradition)	5.91(1.90)	6.85(1.57)	32.34***	<.001	.07
	정중함(civility)	6.78(1.55)	7.28(1.36)	12.92***	<.001	.03
	정직함(honesty)	6.87(1.45)	7.31(1.42)	10.40***	.001	.02
	조화(harmony)	6.72(1.65)	7.33(1.48)	16.68***	<.001	.04
	충성심(loyalty)	6.39(1.73)	6.81(1.58)	6.81**	.009	.02
평등(equality)	6.80(1.63)	6.90(1.56)	.42	.518	.00	

*p < .05, **p < .01, ***p < .001

$p < .001$]에서 세대 간 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났는데, 50대가 20대에 비해 현재 해당 가치들을 더 중시하는 모습이 발견됐다.

각 세대가 현재 중시하는 가치와 상대 세대가 지각한 현재 가치 간의 차이

각 세대가 현재 중시하는 가치가 상대 세대가 지각한 현재 가치와 차이가 존재하는지 알아보고자 했다. 이를 위해 20대의 현재 가치는 50대가 지각한 20대의 현재 가치와 비교하였으며(표 4), 50대의 현재 가치는 20대가 지각한 50대의 현재 가치와 비교하였다(표 5).

먼저, 표 4에선 기존 종속변수들인 “20대의 현재 주체적 가치”와 “50대가 지각한 20대의 현재 주체적 가치”를, 그리고 “20대의 현재 공존적 가치”와 “50대가 지각한 20대의 현재 공존적 가치”를 통합하여 “20대의 주체적 가치”와 “20대의 공존적 가치”라는 새로운 종속변수들을 임의로 생성 및 투입하였고, 다변량 분산분석을 통해 세대에 따른 20대의 주체적 가치와 공존적

가치 간의 차이를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 20대의 주체적 가치가 아닌 공존적 가치에서 유의한 차이가 발견됐다[Pillai's Trace = .06, $F(2, 438) = 14.87^{***}$, $p < .001$, $\eta^2 = .06$]. 구체적으로, 20대는 현재 공존적 가치($M = 6.60$)보단 주체적 가치($M = 6.69$)를 중시하는데, 상대 세대인 50대 역시 20대가 현재 공존적 가치($M = 6.11$)보단 주체적 가치($M = 6.86$)를 중요하게 여긴다고 지각했다. 하지만 이들 간의 차이를 통계적으로 검증한 결과, 주체적 가치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고($F(2, 438) = 2.38$, $p = .124$), 공존적 가치에서만 그러한 차이가 발견되었다($F(2, 438) = 26.77^{***}$, $p < .001$). 이러한 결과는 50대가 지각한 대로 20대는 현재 주체적 가치를 상당히 추구하고 있지만, 50대가 지각한 것과는 달리 20대는 현재 공존적 가치 역시 매우 중시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표 4와 동일한 방식으로, 표 5에선 기존 종속변수들인 “50대의 현재 주체적 가치”와 “20대가 지각한 50대의 현재 주체적 가치”를, 그리고 “50

표 4. 20대가 현재 중시하는 가치와 50대가 지각한 20대의 현재 가치 간 차이

	20대 ($n = 228$)	50대 ($n = 213$)	F	η^2
	$M(SD)$	$M(SD)$	$F(2, 438) = 14.87^{***}$.06
20대의 주체적 가치	6.69(1.21)	6.86(1.15)	$F(2, 438) = 2.38$.01
20대의 공존적 가치	6.60(1.21)	6.11(1.60)	$F(2, 438) = 26.77^{***}$.03

* $p < .05$, ** $p < .01$, *** $p < .001$

표 5. 50대가 현재 중시하는 가치와 20대가 지각한 현재 50대의 가치 간 차이

	50대 ($n = 213$)	20대 ($n = 228$)	F	η^2
	$M(SD)$	$M(SD)$	$F(2, 438) = 23.27^{***}$.10
50대의 주체적 가치	6.47(1.08)	6.86(0.97)	$F(2, 438) = 15.89^{***}$.04
50대의 공존적 가치	7.10(1.00)	6.79(1.18)	$F(2, 438) = 8.94^*$.02

* $p < .05$, ** $p < .01$, *** $p < .001$

대의 현재 공존적 가치”와 “20대가 지각한 50대의 현재 공존적 가치”를 통합하여 “50대의 주체적 가치”와 “50대의 공존적 가치”라는 새로운 종속변인들을 임시로 생성 및 투입하였다. 이후 다변량 분산분석을 통해 세대에 따라 50대의 주체적 가치와 공존적 가치 간에 차이가 존재하는지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 50대의 주체적 가치와 공존적 가치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가 발견됐다[Wilks' Lambda = .90, $R^2(438) = 23.27^{***}$, $p < .001$, $\eta^2 = .10$]. 구체적으로, 50대는 현재 주체적 가치($M = 6.47$)보다 공존적 가치($M = 7.10$)를 중시하고 있지만, 상대 세대인 20대는 되려 50대가 현재 공존적 가치($M = 6.79$)가 아닌 주체적 가치($M = 6.86$)를 더 중시한다고 지각하였다. 이들의 차이를 통계적으로 검증한 결과, 주체적 가치[$F(2, 438) = 15.89^{***}$, $p < .001$]와 공존적 가치[$F(2, 438) = 8.93^*$, $p < .003$]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20대가 지각한 바와 다르게, 50대는 주체적 가치를 덜 추구하며 특히 공존적 가치는 굉장히 중시하는 것으로 해석

될 수 있었다.

표 4와 표 5의 결과를 종합했을 때, 현재 20대와 50대 모두 각자의 상대 세대가 공존적 가치보다 주체적 가치를 더 중시한다고 지각하는 양상이 확인되었다. 하지만 20대는 50대가 지각한 것과는 달리 현재 주체적 가치뿐만 아니라 공존적 가치 역시 중시하고 있었고, 50대는 20대가 지각한 것에 비해 현재 주체적 가치보다 공존적 가치를 훨씬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세대가 현재 중시하는 가치와 상대 세대가 과거에 중시했던 혹은 미래에 중시할 가치 간의 차이

각 세대가 현재 중시하는 가치와 상대 세대가 과거에 중시했던 가치 혹은 미래에 중시할 가치 간의 차이를 알아보려고 하였다. 이에 따라 20대가 현재 중시하는 가치와 50대가 과거 20대에 중시했던 가치 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6에, 50대가 현재 중시하는 가치와 20대가 미래 50대에 중시할 가치 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7에 제시하였다.

표 6. 20대가 현재 중시하는 가치와 50대가 과거 20대에 중시했던 가치 간 차이

	20대 ($n = 228$)	50대 ($n = 213$)	F	η^2
	$M(SD)$	$M(SD)$	$F(2, 438) = 1.40$.01
20대 시절 주체적 가치	6.69(1.21)	6.60(1.20)	$F(2, 438) = .64$.00
20대 시절 공존적 가치	6.60(1.21)	6.69(1.16)	$F(2, 438) = .60$.00

* $p < .05$, ** $p < .01$, *** $p < .001$

표 7. 50대가 현재 중시하는 가치와 20대가 미래 50대에 중시할 가치 간 차이

	50대 ($n = 213$)	20대 ($n = 228$)	F	η^2
	$M(SD)$	$M(SD)$	$F(2, 438) = 2.93$.01
50대 시절 주체적 가치	6.47(1.08)	6.63(1.13)	$F(2, 438) = 2.34$.01
50대 시절 공존적 가치	7.10(1.00)	7.02(0.98)	$F(2, 438) = .82$.00

* $p < .05$, ** $p < .01$, *** $p < .001$

우선 표 6에선 20대가 현재 중시하는 가치와 50대가 과거 20대에 중시했던 가치를 비교하고자 기존의 “20대의 현재 주체적 가치”와 “50대의 과거 주체적 가치,” 그리고 “20대의 현재 공존적 가치”와 “50대의 과거 공존적 가치” 변수들을 통합하여 “20대 시절 주체적 가치”와 “20대 시절 공존적 가치”라는 새로운 종속변인들을 임시로 생성 및 투입하였다. 이후 다변량 분산분석을 실시하여 세대에 따라 20대 시절에 중시하는(중시했던) 주체적 가치와 공존적 가치에서 차이가 발생하는지 알아보았다.

분석 결과, 20대 시절에 중시하는(중시했던) 주체적 가치와 공존적 가치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Pillai's Trace = .01, R^2 , 438) = 1.40, $p = .247$, $\eta^2 = .01$). 구체적으로, 현재 20대는 공존적 가치($M = 6.60$)보다 주체적 가치($M = 6.69$)를 추구하는 반면, 50대는 과거 20대에 주체적 가치($M = 6.60$)보다 공존적 가치($M = 6.69$)를 더 중시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20대 시절의 주체적 가치와 공존적 가치 간의 차이를 통계적으로 검증했을 때, 주체적 가치에서 두 세대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F(2, 438) = .64$, $p = .424$), 공존적 가치에서도 그러한 차이가 보이질 않았다($F(2, 438) = .60$, $p = .438$). 이를 통해 20대가 현재 중시하는 가치와 50대가 과거 20대에 중시했던 가치 간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마찬가지로, 표 7에선 50대가 현재 중시하는 가치와 20대가 미래 50대에 중시할 가치를 비교하고자 기존의 “50대의 현재 주체적 가치”와 “20대의 미래 주체적 가치,” 그리고 “50대의 현재 공존적 가치”와 “20대의 미래 공존적 가치” 변수들을 통합해 “50대 시절 주체적 가치”와 “50대 시절 공존적 가치”라는 새로운 종속변인들을 임시로 생성 및 투입하였다. 이후 다변량 분산분석을 통해 세대에 따라 50대 시절에 중시하는(중시할) 주체적 가치와 공존적 가치에서 차이가 나타나는지 알아보았다.

분석 결과, 50대 시절 중시하는(중시할) 주체

적 가치와 공존적 가치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Pillai's Trace = .01, R^2 , 438) = 2.93, $p = .054$, $\eta^2 = .01$). 구체적으로, 50대는 현재 주체적 가치보단($M = 6.47$) 공존적 가치($M = 7.10$)를 중시하는데, 흥미롭게도 20대 역시 자신이 50대가 되었을 때 주체적 가치($M = 6.63$)보다 공존적 가치($M = 7.02$)를 추구할 것이라 판단했다. 이들의 50대 시절 주체적 가치 및 공존적 가치 간의 차이를 통계적으로 검증한 결과, 두 세대 간 주체적 가치에서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며($F(2, 438) = 2.34$, $p = .127$). 공존적 가치에서도 동일한 양상을 보였다($F(2, 438) = .82$, $p = .336$). 따라서 50대가 현재 중시하는 가치는 20대가 미래 50대에 중시할 가치와 큰 차이가 없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현재 주체적 가치와 공존적 가치가 각 세대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현재 주체적 가치와 공존적 가치가 각 세대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려고 20대와 50대를 구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7에선 인구통계학적 변수인 성별과 직업을 통제하여 세대별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표 8에서 제시되었듯이, 20대의 경우 현재 주체적 가치($\beta = .12$, $p = .131$)가 아닌 공존적 가치($\beta = .34$, $p < .001$)가 그들의 자아존중감을 정적인 방향으로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50대의 경우 현재 주체적 가치($\beta = .08$, $p = .333$)와 공존적 가치($\beta = .14$, $p = .073$) 모두 개인의 자아존중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20대가 현재 공존적 가치를 중시할수록 그들의 자아존중감이 상승하지만, 50대는 현재 주체적 가치와 공존적 가치 모두가 그들의 자아존중감에 유의한 변화를 일으키진 않는다고 해석될 수 있다.

표 8. 현재 주체적 가치와 공존적 가치가 각 세대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세대	변수	B	S.E.	β	t	p	VIF
20대	(절편)	14.79	2.23	-	6.64***	<.001	
	성별	.63	.71	.05	.89	.373	1.02
	직업	.04	.72	.17	2.84**	.005	1.02
	현재 주체적 가치	.59	.39	.12	1.52	.131	1.82
	현재 공존적 가치	1.61	.39	.34	4.14***	<.001	1.83
	자아존중감	(절편)	24.52	2.47	-	9.92***	<.001
50대	성별	.22	.66	.02	.33	.739	1.11
	직업	-.00	.64	.00	-.01	.996	1.10
	현재 주체적 가치	.31	.32	.08	.97	.333	1.30
	현재 공존적 가치	.62	.35	.14	1.80	.073	1.30

성별은 남성 = 0, 여성 = 1로 코딩하였음.
 직업은 비직장인 = 0, 직장인 = 1로 코딩하였음.
 * $p < .05$, ** $p < .01$, *** $p < .001$

현재 주체적 가치와 공존적 가치가
 각 세대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20대와 50대를 구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했
 다. 인구통계학적 변인인 성별과 직업은 통제하
 고 세대별로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9에 제시

표 9. 현재 주체적 가치와 공존적 가치가 각 세대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세대	변수	B	S.E.	β	t	p	VIF
20대	(절편)	4.38	2.20	-	1.99*	.048	
	성별	.47	.70	.04	.68	.501	1.02
	직업	.84	.70	.07	1.18	.238	1.02
	현재 주체적 가치	.17	.38	.03	.45	.656	1.82
	현재 공존적 가치	2.60	.38	.52	6.78***	<.001	1.83
50대	(절편)	9.42	3.34	-	2.82**	.005	
	성별	.03	.89	.00	.03	.974	1.11
	직업	-.53	.87	-.04	-.61	.541	1.10
	현재 주체적 가치	1.96	.43	.34	4.57***	<.001	1.30
	현재 공존적 가치	.12	.47	.02	.26	.796	1.30

성별은 남성 = 0, 여성 = 1로 코딩하였음.
 직업은 비직장인 = 0, 직장인 = 1로 코딩하였음.
 * $p < .05$, ** $p < .01$, *** $p < .001$

했다.

분석 결과, 20대의 삶의 만족도에는 현재 주체적 가치($\beta = .03, p = .656$)가 아닌 공존적 가치($\beta = .52, p < .001$)가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50대의 삶의 만족도에는 현재 공존적 가치($\beta = .02, p = .796$)가 아닌 주체적 가치($\beta = .34, p < .001$)가 유의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발견됐다. 이러한 결과는 20대는 현재 공존적 가치를 중시할수록 그들의 삶의 만족도가 상승하지만, 오히려 50대는 주체적 가치를 중시할수록 그들의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논 의

본 연구는 Big Two의 두 차원인 주체성과 공존성을 통해 한국인 20대와 50대를 대상으로 그들의 주요 가치관을 탐색하였다. 연구 결과, 현재 20대는 상대적으로 공존적 가치보다 주체적 가치를 중시하지만, 반대로 50대는 주체적 가치보다 공존적 가치를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대와 50대는 서로 상대 세대가 공존적 가치보다 주체적 가치를 훨씬 중시한다고 지각하는 경향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20대는 현재 공존적 가치보다 주체적 가치를 상대적으로 더 중시하는 결과를 보였는데, 상대 세대인 50대는 20대가 주체적 가치를 훨씬 더 중시할 것이라 바라봤다. 마찬가지로, 50대는 현재 주체적 가치보다 공존적 가치를 중시한다는 결과를 보였으나, 상대 세대인 20대는 50대가 주체적 가치를 더 중시한다고 보았다.

게다가, 20대와 50대 현재 중시하는 가치는 상대 세대의 과거 혹은 미래 가치와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예컨대, 20대가 현재 중시하는 가치는 50대가 과거 20대에 중시했던 가치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고, 50대가 현재 중시하는 가치 역시 20대가 미래 50대에 중시할 가치와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아울러,

현재 주체적 가치와 공존적 가치가 자아존중감과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세대별로 다르게 나타났다. 20대에서는 자아존중감과 삶의 만족도 모두에서 공존적 가치가 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에 반해, 50대에서는 어떤 가치도 그들의 자아존중감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삶의 만족도에선 주체적 가치가 그들의 삶의 만족도에 정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었다.

본 연구는 현재 한국인 20대와 50대가 서로 세대 차이를 느끼는 이유를 심리학적으로 해석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그동안 20대와 50대는 종종 서로 세대 차이를 느껴왔지만, 그러한 차이의 원인을 어렵짐작할 뿐, 상대 세대가 왜 자기 세대와 다른지에 관한 구체적인 원인을 찾기 어려웠을 것이다. 하지만 본고는 심리적인 변인인 가치(value)에 주목하여 20대는 현재 공존적 가치보다 주체적 가치를, 50대는 현재 주체적 가치보다 공존적 가치를 중시한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확인했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 선행 연구(e.g. Erikson, 1950, 1980; Levinson, 1978, 1986; Ritter & Freund, 2014; Walker & Frimer, 2015)와 같이 개인이 젊은 시절 자기 능력, 쾌락, 독립성, 그리고 영향력만을 중시하다가 나이가 들면서 다른 사람과 조화를 이루고 따뜻함과 친밀감을 경험하는 관계 지향적인 삶을 지향하게 된다는 것과 맥을 같이 했다. 따라서 이와 같은 20대와 50대의 상이한 가치관은 곧 서로의 우선순위, 그리고 지향하는 삶의 모습에 있어 충돌로 이어질 수 있고(Schwartz, 1992, 1994), 이것이 곧 세대 차이로 다가올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게다가, 본 연구에서 20대가 현재 중시하는 가치가 50대가 과거 20대에 중시했던 가치, 또 50대가 현재 중시하는 가치가 20대가 미래 50대에 중시할 가치에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부분이 주목할만했다. 이를 통해 두 세대가 경험하는 세대 차이는 단순히 두 세대가 서로 근본적으로 완전히 구분되는, 서로 다른 집단이라

서기 보단, 두 세대가 현재 성인 초기와 성인 중기라는 서로 다른 생애 발달 단계(Erikson, 1950, 1980; Levinson, 1978, 1986;)에 놓였기에 발생할 것이라는 부분을 알 수 있었다. 다시 말해, 20대와 50대는 현재 추구하는 가치는 다르지만, 이는 서로 속하는 발달 단계 간에 차이가 있기에 기인한 것으로, 사실상 한국인 20대와 50대는 성인 초기와 성인 중기라는 발달 단계를 지나면서 서로가 비슷한 가치를 중시하며 살았고, 살아가고, 또 살아갈 것을 보여주며, 그러한 가치의 양상은 개인 지향적에서 타인 지향적으로 변화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었다.

한편, 연구에서 20대와 50대 모두 각자의 상대 세대가 현재 주체적 가치를 매우 중시하고 공존적 가치는 덜 추구한다고 지각하는 경향이 발견됐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고려했을 때, 두 세대는 모두 상대 세대가 향해 유능성(competence)은 높지만 따뜻함(warmth)이 부족한 집단으로 서로를 인식하고 있음을 시사한다(Abele & Wojciszke, 2007). 고정관념 내용 모델(Stereotype Content Model)에 따르면, 유능성이 높고 따뜻함이 부족한 집단은 상대 집단으로부터 그들의 능력과 지위는 인정받지만, 냉담하고 신뢰할 수 없으며 사교적이진 못하다는 편견이 형성된다고 설명한다(Fiske, Cuddy, Glick, & Xu, 2002). 이처럼 능력은 있지만 타인에게 무관심한 특성은 종종 타인보다 우월하다는 인상을 형성하기에 곧 상대 집단으로부터 선망(envy)과 질투(jalousy), 심지어 혐오까지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Cuddy, Fiske, & Glick, 2007; Smith, 2000; Smith, Parrott, Ozer, & Moniz, 1994).

해당 모델에 근거했을 때, 두 세대 모두 서로의 상대가 현재 주체적 가치를 더 추구하고 공존적 가치를 추구하지 않는다고 지각하는 연구 결과는 두 세대 간 갈등의 주요 원인으로 이해될 수 있다. 다시 말해, 현재 20대는 상대 세대인 50대가 갖는 경제적 여유로움과 권위는 인정하나, 주위 사람을 존중하거나 배려하지 못하는 “꼰대”로 평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마찬가지로,

현재 50대는 20대가 능력과 독립성을 중시하는 건 인정하지만, 타인과 소통하거나 배려하지 않는 “MZ 애들”이라는 일종의 고정관념이 존재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일상에서 서로를 향해 빈번히 사용되는 “꼰대”나 “MZ 애들”과 같은 세대 지칭 용어는 단순히 20대나 50대에게 붙여지는 통상적인 별명은 아닌 것으로 이해된다. 두 세대는 해당 용어를 사용하면서 상대 세대가 자기 이익적(self-profitable)이지 결코 타인 이익적인(other-profitable) 집단은 아니라고 인식하고 있음을 암시하며(Peters, 2007), 그 과정에서 상대 세대를 향한 적대심, 경쟁심, 분노, 혐오, 그리고 열등감까지 느낄 수도 있을 것으로 짐작된다(Cuddy, Fiske, & Glick, 2007; Smith, 2000; Smith, Parrott, Ozer, & Moniz, 1994).

그뿐만 아니라, 본 연구는 세대에 따라 현재 주체적 가치와 공존적 가치가 그들의 자아존중감과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선행 연구들은 자아존중감에는 공존적 가치보단 주체적 가치가 더 유의미하게 예측하고, 삶의 만족도는 주체적 가치보단 공존적 가치가 기여하는 바가 더 크다고 보고해 왔다(e.g. Abele, 2014; Wojciszke, Baryla, Parzuchowski, Szymkow, & Abele, 2011).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20대의 경우 현재 공존적 가치가 그들의 자아존중감과 삶의 만족도를 예측하지만, 50대의 경우 현재 주체적 가치가 그들의 삶의 만족도를 예측한다는 결과가 보고되며 기존 연구와 다른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해당 결과가 흥미롭게 느껴지는 이유는 각 세대가 현재 중시하는 가치와 반대되는 가치가 정작 그들의 자아존중감과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기 때문이다. 예컨대, 표 3을 참고했을 때, 20대는 현재 자신의 능력을 기르고 사회 안에서 무언가를 성취하는 주체적 가치를 중시하지만, 정작 타인과 신뢰 관계를 형성하고 거저 없이 진솔하게 사는 삶에 자신이 더욱 가치 있다고 느끼며 행복을 경험할 수 있던 것이

었다. 반대로, 50대는 현재 다른 사람과 조화롭고 신뢰로운 관계를 지향하지만, 자신이 무언가를 성취하고 능동적인 인생을 살 수 있을 때 오히려 삶에 대한 만족을 크게 경험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해당 결과를 앞선 연구 결과들과 세대 갈등의 맥락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본 연구를 통해 20대는 현재 공존적 가치보다 주체적 가치를 상대적으로 중시하지만, 중시하는 가치와는 반대인 공존적 가치가 정작 그들의 자아존중감과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만, 20대를 향한 “MZ 애들”이라는 인식은 표 4와 같이 대체로 주체적 가치를 추구하고 공존적 가치를 중시하지 않는 모습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측되는데, 만약 20대가 현재 주체적 가치뿐만 아니라 공존적 가치 역시 중시하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면, 그들은 그들의 자아존중감과 삶의 만족도를 증진할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세대(특히 50대)와 상호작용하면서 “요즘 애들,” “MZ 애들”과 같이 “개인주의적”이라는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일부 해소할 수 있리라 전망할 수 있다.

50대의 경우, 본고에서 현재 주체적 가치보다 공존적 가치를 훨씬 중시하는 것으로 발견됐으며, 그들의 삶의 만족도는 그들이 중시하는 공존적 가치가 아니라 주체적 가치를 오히려 중시함으로써 상승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여기서 50대가 현재 주체적 가치를 조금 더 중시하여 그들의 삶의 만족도를 증진하면 좋을 것이라고 단순히 결론 내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표 5와 같이 50대는 현재 공존적 가치를 중시함에도 불구하고, 상대 세대인 20대로부터 공존적 가치가 아니라 주체적 가치를 현재 더 추구하는 것으로 지각되면서, 그들을 향해 “꼰대”라는 부정적인 인식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고는 50대가 그들의 삶에 있어서 개인적으로 현재 주체적 가치를 중시하는 것이 이로울 수 있지만, 다

른 세대(특히 20대)와 교류하는 데 있어선 그들이 현재 공존적 가치를 추구하고 있다는 정보를 제시하고 더욱 강조한다면, 타인 친화적인 인상이 형성됨에 따라 세대 갈등 맥락에서 그들을 향한 부정적인 인식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라고 예상할 수 있었다.

그러나 본고는 두 세대 모두 현재 중시하는 가치와 반대되는 가치가 그들의 자아존중감 및 삶의 만족도에 왜 유의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또 50대의 자아존중감에만 어떠한 가치도 유의한 영향을 왜 미치지 못하고 있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이유를 파악하지 못한 부분에 있어 한계점이 존재한다. 우선 후자의 결과와 관련해서 선행 연구(e.g. Mitchell & Helson, 1990; Robins, Trzesniewski, Tracy, Gosling, & Potter, 2002)에 비추어 보았을 때, 성인 중기의 개인은 성별이나 인종 등에 상관없이 나이 들에 따라 심리적 성숙도가 높아지며 자아존중감이 높게 유지되기에 어떠한 가치를 추구하는 그들의 자아존중감이 크게 변화되지 않을 수 있다고 일부 짐작하여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주체적 가치가 개인의 자아존중감을, 그리고 공존적 가치가 삶의 만족도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기존 연구들(e.g. Abele, 2014; Lee, Kawachi, 2019)이 보고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본고에선 20대의 자아존중감엔 공존적 가치가, 50대의 삶의 만족도엔 주체적 가치가 정적으로 예측하였다는 결과가 발견됐다. 따라서 추후 연구는 해당 결과를 다시 재현해 보거나, 주체적 가치-공존적 가치와 자아존중감, 혹은 주체적 가치-공존적 가치와 삶의 만족도 사이에 세대나 연령이 조절 변수로써 작용할 수 있는지 이들 간의 관계성을 구체적으로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는 성인 초기의 한국인 20대와 성인 중기의 한국인 50대로 대상을 제한하여 주요 가치관을 탐색했다는 점에서 제한점이 존재한다. 분명 20대와 50대는 직장과 같은 조직 사회에서 세대 갈등을 경험하고 서로의 차이를 크게 느낄 가능성이 높은 세대임은 틀림없다. 하

지만 한국리서치(2023)의 보고처럼 한국 사회에서 오직 20대와 50대만이 세대 갈등과 차이를 경험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향후 연구는 성인 초기에 해당하는 20대와 30대, 성인 중기의 40대와 50대, 심지어 성인 후기의 60대까지 대상을 확대하여 Big Two에 따른 그들의 가치관 차이를 탐색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비슷하게, 앞으로 한국 사회에서 세대 갈등 및 세대 차이는 청소년기의 10대와 바로 다음 세대인 성인 초기의 20대와 30대 사이에서, 또 같은 세대인 20대와 30대 내에서도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일부 20대와 30대가 서로 “젊은 꼰대”로 자처함에 따라 그러할 가능성이 존재할 것으로 보인다(엠프레인, 2022). 그러므로 해당 맥락에서 “젊은 꼰대”란 심리학적으로 무슨 의미이며 왜 발생하는지, 또 10대와 20대, 30대를 대상으로도 세대 차이가 구체적으로 어디서 발생하는지, 같은 성인 초기인 20대와 30대 사이에서도 왜 세대 차이가 발견되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으며, 더욱이 Big Two의 두 차원으로도 설명 가능한지 확인해 볼 적하다.

아울러, 본고는 한국 사회에서 경험되는 세대 차이를 이해하고자 주체성과 공존성의 두 차원을 통해 세대의 가치를 측정했지만, 추후 연구는 세대의 실제 성격(personality)과 행동(behavior)까지 추가로 측정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분명 개인의 가치와 성격은 실제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하지만 가치는 인간의 동기에 대한 인지적 표상이며(Rokeach, 1973; Schwartz, 1992; Schwartz, & Bilsky, 1987, 1990), 성격은 그러한 동기와 상관없이 “나는 어떠한 사람이다”와 같은 안정적이고 선천적인 자기 개념(self-concept)을 설명한다(Baumeister, 1999).

즉, 전자는 개인이 어떤 목표나 행동을 지향하는지를 나타내나, 성격은 개인이 어떠한 사람 인지를 설명하며 그 개인이 왜 특정 목표나 행동을 꾸준히 지향하게 되는지를 기술하는 구성 개념이라 볼 수 있다(Abele, 2014; Czerniawska,

Czerniawska, & Szydło, 2021). 따라서 서로 동일한 가치를 추구하더라도 실제 행동은 환경에 따라 다르게 표현될 수 있으며, 서로 다른 성격에서도 같은 가치를 추구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에 향후 연구는 Big Two에 따른 세대 간의 성격 혹은 행동 차이를 추가로 탐색하고, 어떤 성격이나 행동이 각 세대의 자아존중감과 삶의 만족도를 증진할 수 있는지도 파악한다면 Big Two와 세대 연구가 더욱 풍부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주체성과 공존성을 각각 단일 차원으로 바라봤지만, 향후 연구에선 주체성과 공존성의 하위 2개 차원까지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Abele 외(2016)는 주체성은 주체성-자기 주장성(agency-assertiveness, AA)과 주체성-유능성(agency-competence, AC), 공존성은 공존성-따뜻함(communion-warmth, CW)과 공존성-도덕성(communion-morality, CM)의 2개 하위 차원으로 구분될 수 있음을 제안했다. 이는 개인의 주체성엔 성공적으로 목표를 추진하기 위한 능력(AC)과 자신감이나 야망(AA)이 필요하며, 공존성엔 타인에게 반응적으로 대할 수 있는 애정과 공감(CW) 그리고 사회적 가치(social value)와 윤리(ethics)에 따라 타인과 ‘올바른(correct)’ 관계를 맺게끔 하는 신뢰나 배려(CM)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Abele et al., 2016).

이러한 세부 차원은 일부 서양 연구에서 타당하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다. 예를 들어, Hauke와 Abele(2020)은 개인은 주체성 중 AA가 손상될 때 정체성 위협(identity threat)을 느끼며 공존성 중 CM이 평가절하 될 때 평판 위협(reputation threat)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결과를 확인했다. 이들의 연구는 DPM을 확장하여 자기 지각(self-perception)에 있어서 단순히 주체성만이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보여주었으며, Abele과 Hauke(2020) 역시 타인 지각(other-perception)이 주체성 중 AC와 공존성 중 CM과 상당히 관련 있다는 결과를 보고하며 타인 지각에 공존성만이 중요한 단서로 사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하였다. 게다가, Abele 외(2016) 연구는 주

체성이 자아존중감과 관련 있다는 선행 연구(Wojciszke, Baryla, Parzuchowski, Szymkow, & Abele, 2011)를 보완하여, 주체성 중 AA가 자아존중감을 강력하게 예측하나, 공존성 중 CM 역시 자아존중감에 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을 알려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ig Two의 두 차원을 다시 하위 차원으로 나눈 연구는 주로 서양에서 시행됐기에 이러한 프레임워크가 한국인의 심리를 이해하는 데 유의할지는 밝혀진 바가 없고, 앞선 연구와 비슷한 결과까지 도출될지는 확실치 않아 추가적인 연구가 매우 필요해 보인다. 예컨대, 한국인의 자기 지각(self-perception)이 Hauke와 Abele(2020)처럼 AA와 CM이 두드러질지는 의문이 드는데, 본고의 표 3을 참고했을 때 한국인(특히 20대와 50대)은 개인의 능력과 성취를 중시하고 있어, 적어도 AA가 아닌 AC가 강조되는 또 다른 양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비슷한 논리로, 한국인의 자아존중감에 AA가 아니라 AC가 정적으로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한국 사회의 세대 갈등 문제는 한 사회의 정치적, 경제적 영역뿐만 아니라, 사회 구성원들의 대인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강량, 2014; 남순현, 2004; 설진선, & 김수연, 2020). 그렇기 때문에 세대 갈등은 조속히 해결되어야 할 문제지만, 해당 문제를 심리학적으로 살펴본 문헌은 그리 많지 않은 편이다. 따라서 본고는 생애 단계로서의 세대 개념(Kertzer, 1983)에서 시작하여 세대 차이를 가치(value)를 통해 측정하였고, 특히 한국인 20대와 50대가 경험하는 세대 차이(대한상공회의소, 2020; 한국리서치, 2021, 2023)에 주목해 이들이 현재 중시하는 가치 간의 차이는 무엇인지 Big Two의 주체성-공존성의 차원을 통해 탐색하였다.

연구 결과, 현재 한국인 20대는 현재 남들보다 능력에서 앞서 나가고 더 많은 것들을 성취해 내는 주체적 가치를 추구하나, 50대는 타인과 어울리고 따뜻하며 조화로운 대인관계를 형

성하는 공존적 가치를 추구하는 경향을 보였다. 게다가, 이들이 현재 추구하는 가치가 정작 상대 세대의 과거나 미래 가치와는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는 부분에서 이들이 느끼는 세대 차이는 생애 단계 혹은 연령적인 요인에 비롯된 것임을 알 수 있었다. 즉, 이들이 경험하는 세대 차이는 두 세대가 근본적으로 다른 특성을 보이는 집단이라서기 보단, 그들이 각각 성인 초기와 성인 중기라는 상이한 발달 단계(Erikson, 1950, 1982; Levinson, 1978, 1986)에 놓임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사실상 두 세대는 서로 비슷하게 살았고, 살고 있으며, 살아갈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었다. 더욱이, 현재 20대와 50대 모두 서로 상대 세대가 주체적 가치를 중시하고 공존적 가치를 중시하지 않는다고 지각하는 결과가 나타났는데, 이러한 모습은 두 세대 모두 상대 세대를 향해 자기만 알고 남은 배려하지 못한다고 인식하는 것을 보여주며, 이는 서로를 지칭하는 “꼰대”나 “MZ 애들”과 같은 별명에서도 반영된 것처럼 보인다. 끝으로, 각 세대가 현재 중시하는 가치와 반대되는 가치가 오히려 그들의 자아존중감과 삶의 만족도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나타났으며, 이를 통해 세대 갈등 맥락에서 두 세대가 주체적 가치 및 공존적 가치를 어떻게 추구하면 좋을지 논의 부분에 기술하였다.

종합적으로, 한국 사회에서 현재 20대와 50대는 서로 다른 가치를 추구함에 따라 세대 차이를 느낄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더욱이, 한국 사회가 여러 이슈로 인해 불안정해질 무렵, 두 세대는 서로 능력이 있지만,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회를 어지럽힐 수 있는 집단으로 지각할 수 있기에 한정된 자원을 놓고 경쟁하고 적대적인 태도를 취할 수도 있다(Cuddy, Fiske & Glick, 2007). 이때 본 연구의 결과처럼 세대 간 현재 중시하는 가치가 다르더라도, 근본적으로 서로가 과거와 미래에 비슷한 가치를 중시하며 살았고 살 수도 있다는 점을 인지한다면, 서로의 공통점을 확인할 수 있어 한국 사회의 세대 갈등을 이해하고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으로 기대된다.

저자소개

김도희는 중앙대학교 심리학과 사회 및 문화심리 전공 석사수료를 하였다. 연구 관심사는 대인관계심리학에 있고, 특히 사회인지와 대인지각에 관심이 있다. 이와 관련해서 최근에는 대인관계에서 뒷담화가 호감도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연구하고 있다.

정태연은 중앙대학교 심리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연구 관심사는 사회와 문화심리학에 있고, 특히 사회심리학에 기초해서 한국의 문화를 분석하는 데 관심이 있다. 이와 관련해서 한국인의 성인발달과 대인관계, 한국의 사회문제를 연구해 왔다. 저서로는 「사회심리학, 2판」(2024), 「대인관계와 의사소통의 심리학」(2022), 「심리학, 군대 가다」(2016) 등이 있다.

참고문헌

구자숙, 한준, 김명언 (1999). 세대 격차와 갈등의 사회심리적 구조. *심리과학*, 8(1), 123-139.

강량 (2014). 한국사회 세대갈등 현상의 원인과 해소방안에 관한 소고. *대한정치학회보*, 21(3), 261-289.

김민희 (2018년 4월 6일). 가족은 '전쟁 중' 가족 갈등, 집안 문제가 아닌 사회문제다. 주간조선.
<http://weekly.chosun.com/news/articleView.html?idxno=12864>

김성아, 정혜식 (2019). 연령대별 삶의 만족 영향요인 분석과 정책 과제. *보건복지포럼*, 2019(4), 95-104.

김우성, 허은정 (2007). 베이비붐세대, X세대, Y

세대 소비자들의 소비관련 가치관과 라이프스타일의 비교. *소비문화연구*, 10(4), 31-53.

김의철, 박영신, 김명언, 이진우, 유호식 (2000). 청소년, 성인, 노인 세대의 차이와 생활만족도.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5(1), 119-145.

김명언, 김의철, 박영신 (2000). 청소년과 성인간의 세대차이와 유사성.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6(1), 181-204.

남순현 (2004). 가족 내 세대갈등과 통합.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10(2), 1-15.

남윤주, 남승규 (2022). 세대별 소비자행복: MZ세대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소비자, 광고*, 23(2), 129-152.

대한상공회의소 (2020). 직장 내 세대갈등과 기업문화 종합진단 보고서.

박시내, 박혜균 (2022). MZ세대의 생활 환경: 생활비 원천, 주거실태. *KOSTAT 통계플러스*, 2022(1), 32-47.

박재홍 (1995). 신세대의 일상적 의식과 하위문화에 관한 질적 연구. *한국사회학*, 29(3), 651-683.

설진선, 김수연 (2020). 직장 내 세대갈등 해결을 위한 사내 커뮤니케이션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역할은 무엇일까?: X·Y 세대 직장인들과의 질적 인터뷰를 통한 탐색적 연구. *사회과학연구*, 59(1), 251-290.

손정희, 김찬석, 이현선 (2021). MZ 세대의 커뮤니케이션 고유 특성에 대한 각 세대별 반응 연구-MZ 세대, X 세대, 베이비붐세대를 중심으로. *커뮤니케이션디자인학연구*, 77, 203-216.

엠브레인 (2022). 2022년 꼰대 관련 인식조사.

연미선 (2023년 9월 12일). [어쩌다 Z세대⑨] 요즘 애들 vs 꼰대, 대립 구도 해체하기. 시사위크.
<http://www.sisaweek.com/news/articleView.html?idxno=207962>

오세일 (2023년 5월 6일). 세대 차이와 MZ세대 공감하기. 오세일 신부 홈페이지.

- <https://sc.sogang.ac.kr/ohseil/>
 은기수, 이윤석 (2005). 한국의 가족가치에 대한 국제비교연구. *한국인구학*, 28(1), 107-132.
- 이윤경, 변수정, 김은정, 진화영, 주보혜, 남궁은하, 김주현, 정윤경 (2020).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국민 인식 및 가치관 심층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조성남, 윤옥경 (2000). 가치관과 행위양식의 세대간 차이와 유사성. *사회과학연구논총*, 5, 103-135.
- 전병재 (1974). SELF-ESTEEM: A TEST OF ITS MEASURABILITY. *延世論叢*, 11(1), 107-130.
- 정옥분 (2013). 성인노인심리학. 서울: 학지사. 43-44.
- 정순돌, 정주희, 김미리 (2016). 연령주의와 연령통합이 세대갈등인식에 미치는 영향: 연령집단별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68(4), 5-24.
- 조명환, 차경환 (1998). 삶의 질에 대한 國家間 比較. 서울: 集文堂.
- 한국리서치 (2021). 2021 세대인식조사: 다른 세대를 바라보는 시선의 차이. 한국리서치 주간리포트, 제 128-2호.
- 한국리서치 (2023). 2023 세대인식조사: 세대갈등 및 다른 세대에 대한 인식. 한국리서치 주간리포트, 제222-1호.
- 한성열 (2019년 3월 18일). [한성열 · 서송희 부부의 심리학 콘서트 ‘중년, 나도 아프다’](135) 성인 발달, 나이가 중요한가? 사건이 중요한가?. 주간경향.
<https://weekly.khan.co.kr/khnm.html?mode=print&artid=201903111449471>
- 황상민, 김도환 (2004). 한국인의 라이프스타일과 세대의 심리적 정체성: ‘세대차이’ 연구를 위한 심리학적 모델.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8(2), 31-47.
- 황선재 (2022). 인구고령화와 세대갈등: 자원배분을 둘러싼 세대간 형평. *사회과학연구*, 33(2), 149-172.
- Abele, A. E. (2003). The dynamics of masculine-agentic and feminine-communal traits: Findings from a prospective stud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5(4), 768-776. <https://doi.org/10.1037/0022-3514.85.4.768>
- Abele, A. E. (2014). Pursuit of communal values in an agentic manner: a way to happiness?. *Frontiers in psychology*, 5:1320.
- Abele, A. E. (2022). Agency and Communion as Fundamental Dimensions of Social Judgment - and Bogdan Wojciszke's Brilliant Idea on Perspective. *Social Psychological Bulletin*, 17, 1-8. <https://doi.org/10.32872/spb.8157>
- Abele, A. E., & Hauke, N. (2020). Comparing the facets of the big two in global evaluation of self versus other people.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50(5), 969-982.
- Abele, A. E., & Wojciszke, B. (2007). Agency and communion from the perspective of self versus other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3(5), 751-763.
- Abele, A. E., & Wojciszke, B. (2014). Communal and agentic content in social cognition: A dual perspective model. In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Vol. 50, pp. 195-255). Academic Press.
- Abele, A. E., Hauke, N., Peters, K., Louvet, E., Szymkow, A., & Duan, Y. (2016). Facets of the fundamental content dimensions: Agency with competence and assertiveness-Communion with warmth and morality. *Frontiers in psychology*, 7. <https://doi.org/10.3389/fpsyg.2016.01810>
- Anderson, C., Hildreth, J. A., & Howland, L. (2015). Is the desire for status a fundamental human motive? A review of the empirical literature. *Psychological Bulletin*, 141(3), 574-601. <https://doi.org/10.1037/a0038781>
- Arnett, J. J. (2000). Emerging adulthood: A theory of development from the late teens through the

- twenties. *American Psychologist*, 55(5), 469-480.
<https://doi.org/10.1037/0003-066X.55.5.469>
- Bakan, D. (1966). *The duality of human existence: An essay on psychology and religion*. Chicago: Rand McNally.
- Baumeister, R. F., & Leary, M. R. (1995). The need to belong: Desire for interpersonal attachments as a fundamental human motivation. *Psychological Bulletin*, 117(3), 497-529.
<https://doi.org/10.1037/0033-2909.117.3.497>
- Baumeister, R. F., & Vohs, K. D. (2018). Revisiting our reappraisal of the (surprisingly few) benefits of high self-esteem. *Perspectives on Psychological Science*, 13(2), 137-140.
- Baumeister, R.F. (Ed.) (1999). *The Self in Social Psychology*. Philadelphia: Psychology Press.
- Beaumont, S. L., & Pratt, M. M. (2011). Identity processing styles and psychosocial balance during early and middle adulthood: The role of identity in intimacy and generativity. *Journal of Adult Development*, 18, 172-183.
- Bem, S. L. (1974). The measurement of psychological androgyn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2(2), 155-162.
<https://doi.org/10.1037/h0036215>
- Bennett, M. M., Beehr, T. A., & Ivanitskaya, L. V. (2017). Work-family conflict: Differences across generations and life cycles. *Journal of Managerial Psychology*, 32(4), 314-332.
- Blanchflower, D. G., & Oswald, A. J. (2004). Well-being over time in Britain and the USA. *Journal of Public Economics*, 88(7-8), 1359-1386.
- Blanchflower, D. G., & Oswald, A. J. (2008). Is well-being U-shaped over the life cycle?. *Social science & Medicine*, 66(8), 1733-1749.
- Brandtstädter, J., Rothermund, K., Kranz, D., & Kühn, W. (2010). Final decenterations. *European Psychologist*.
- Bush, D. M., & Simmons, R. G. (1990). Socialization processes over the life course. In M. Rosenberg & R. H. Turner (Eds.), *Social psychology: Sociological perspectives* (pp. 133-164). New York: Basic.
- Campbell, A. (1981). *The sense of well-being in America: Recent patterns and trends*. New York: McGraw-Hill.
- Chen, X., Li, M., & Wei, Q. (2019). Agency and communion from the perspective of self versus others: The moderating role of social class. *Frontiers in psychology*, 10.
<https://doi.org/10.3389/fpsyg.2019.02867>
- Côté, J. E., & Levine, C. G. (2002). *Identity formation, agency, and culture: A social psychological synthesis*. New Jersey: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Cuddy, A. J. C., Fiske, S. T., & Glick, P. (2007). The BIAS map: Behaviors from intergroup affect and stereotyp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2(4), 631-648.
<https://doi.org/10.1037/0022-3514.92.4.631>
- Czerniawska, D., Czerniawska, M., & Szydło, J. (2021). Between collectivism and individualism - analysis of changes in value systems of students in the period of 15 years. *Psychology Research and Behavior Management*, 2015-2033.
- Deci, E. L., & Ryan, R. M. (1985). *Intrinsic motivation and self-determination in human behavior*. Springer Science & Business Media.
- Diehl, M., Owen, S. K., & Youngblade, L. M. (2004). Agency and communion attributes in adults' spontaneous self-representations.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28(1), 1-15.
<https://doi.org/10.1080/01650250344000226>
- Diener, E. (1984). Subjective well-being. *Psychological bulletin*, 95(3), 542-575.
- Diener, E., & Diener, M. (1995). Cross-cultural correlates of life satisfaction and self-esteem.

-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8(4), 653-663.
- Diener, E., & Seligman, M. E. (2004). Beyond money: Toward an economy of well-being. *Psychological Science in the Public Interest*, 5(1), 1-31.
- Diener, E., Diener, M., & Diener, C. (1995). Factors predicting the subjective well-being of n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9(5), 851-864.
- Diener, E., Emmons, R. A., Larsen, R. J., & Griffin, S. (1985). The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49(1), 71-75. https://doi.org/10.1207/s15327752jpa4901_13
- Dragon, P., Holland, R., Szumowska, E., Suska, A., Kossowska, M., & Wigboldus, D. (2022). Explaining the relationship between Agency and Communion by means of Lay Personality Theories and Connectionist Modelling. <https://doi.org/10.31234/osf.io/g847b>
- Eagly, A. H., Nater, C., Miller, D. I., Kaufmann, M., & Sczesny, S. (2020). Gender stereotypes have changed: A cross-temporal meta-analysis of U.S. public opinion polls from 1946 to 2018. *American Psychologist*, 75(3), 301-315. <https://doi.org/10.1037/amp0000494>
- Erdogan, B., Bauer, T. N., Truxillo, D. M., & Mansfield, L. R. (2012). Whistle while you work: A review of the life satisfaction literature. *Journal of Management*, 38(4), 1038-1083.
- Erikson, E. H. (1950). *Childhood and Society*. New York: Norton.
- Erikson, E. H. (1959). *Identity and the life cycle*. New York: 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
- Erikson, E. H. (1968). *Identity: Youth and crisis*. New York: W. W. Norton & Company.
- Erikson, E. H. (1982). *The life cycle completed*. New York: W. W. Norton & Company.
- Esping-Andersen, G., & Sarasa, S. (2002). The generational conflict reconsidered. *Journal of European Social Policy*, 12(1), 5-21. <https://doi.org/10.1177/0952872002012001560>
- European Social Survey European Research Infrastructure (ESS ERIC). (2012). ESS2 - integrated file, edition 3.6 (Italy not included) [Data set]. Sikt - Norwegian Agency for Shared Services in Education and Research. https://doi.org/10.21338/ESS2E03_
- Fiske, S. T., Cuddy, A. J. C., Glick, P., & Xu, J. (2002). A model of (often mixed) stereotype content: Competence and warmth respectively follow from perceived status and competi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2(6), 878-902.
- Frijters, P., & Beaton, T. (2012). The mystery of the U-shaped relationship between happiness and age. *Journal of Economic Behavior & Organization*, 82(2-3), 525-542.
- Gebauer, J. E., Wagner, J., Sedikides, C., & Neberich, W. (2013). Agency communion and self-esteem relations are moderated by culture, religiosity, age, and sex: Evidence for the "self-centrality breeds self-enhancement" principle. *Journal of Personality*, 81(3), 261-275.
- Hassan, A. B. Y., & Bar-Yam, M. (1987). Interpersonal development across the life span: Communion and its interaction with agency in psychosocial development. *Contributions to Human Development*, 18, 102-128.
- Hauke, N., & Abele, A. E. (2020). Two faces of the self: Actor-self perspective and observer-self perspective are differentially related to agency versus communion. *Self and Identity*, 19(3), 346-368.
- Helgeson, V. S. (1994). Relation of agency and communion to well-being: Evidence and potential explanations. *Psychological Bulletin*, 116(3), 412-428.

- Hentschel, T., Heilman, M. E., & Peus, C. V. (2019). The multiple dimensions of gender stereotypes: A current look at men's and women's characterizations of others and themselves. *Frontiers in Psychology, 10*.
<https://doi.org/10.3389/fpsyg.2019.00011>
- Higgins, E. T. (1987). Self-discrepancy: A theory relating self and affect. *Psychological Review, 94*(3), 319-340.
<https://doi.org/10.1037/0033-295X.94.3.319>
- Hsu, N., Badura, K. L., Newman, D. A., & Speech, M. E. P. (2021). Gender, "masculinity," and "femininity": A meta-analytic review of gender differences in agency and communion. *Psychological Bulletin, 147*(10), 987-1011.
<https://doi.org/10.1037/bul0000343>
- Joshanloo, M., & Jovanović, V. (2021).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in predictors of life satisfaction across age groups: A 150-country study.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26*(3), 401-411.
- Kasser, T., & Ryan, R. M. (1993). A dark side of the American dream: correlates of financial success as a central life aspir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5*(2), 410-422.
- Kasser, T., Rosenblum, K. L., Sameroff, A. J., Deci, E. L., Niemiec, C. P., Ryan, R. M., Árnadóttir, O., Bond, R., Dittmar, H., Dungan, N., & Hawks, S. (2014). Changes in materialism, changes in psychological well-being: Evidence from three longitudinal studies and an intervention experiment. *Motivation and Emotion, 38*(1), 1-22.
<https://doi.org/10.1007/s11031-013-9371-4>
- Kertzer, D. I. (1983). Generation as a sociological problem. *Annual Review of Sociology, 9*(1), 125-149.
<https://doi.org/10.1146/annurev.so.09.080183.001013>
- Kline, R. B. (2005).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2nd ed.). Guilford Press.
- Kluckhohn, C. (1951). Values and value-orientations in the theory of action: An exploration in definition and classification. In *Toward a general theory of action* (pp. 388-433). Harvard University Press.
- Korlat, S., Foerst, N. M., Schultes, M. T., Schober, B., Spiel, C., & Kollmayer, M. (2022). Gender role identity and gender intensification: Agency and communion in adolescents' spontaneous self-descriptions. *Europ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19*(1), 64-88.
- Krause, S., & Dufner, M. (2022). On How to Be Liked in First Encounters: The Effects of Agentic and Communal Behaviors on Popularity and Unique Liking. *Psychological Science, 33*(4), 481-489.
- Leary, M. R., & Baumeister, R. F. (2000). The nature and function of self-esteem: Sociometer theory. In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Vol. 32, pp. 1-62). Academic Press.
- Lee, M. A., & Kawachi, I. (2019). The keys to happiness: Associations between personal values regarding core life domains and happiness in South Korea. *PLoS one, 14*(1), e0209821.
- Levinson, D. J. (1978). *The seasons of a man's life*. New York: Alfred Knopf.
- Levinson, D. J. (1986). A conception of adult development. *American psychologist, 41*(1), 3-13.
<https://doi.org/10.1037/0003-066X.41.1.3>
- Li, S. M., Tseng, L. C., Wu, C. S., & Chen, C. J. (2007). Development of the agency and communion scale. *Social Behavior and Personality: an international journal, 35*(10), 1373-1378.
- Locke, K. D. (2018). Agentic and communal social motives. In *Agency and Communion in Social Psychology* (pp. 65-78).
<https://doi.org/10.4324/9780203703663-6>
- Lönnqvist, J.-E., Verkasalo, M., Helkama, K.,

- Andreyeva, G. M., Bezmenova, I., Rattazzi, A. M. M., Niit, T., & Stetsenko, A. (2009). Self-esteem and values.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39*(1), 40-51.
<https://doi.org/10.1002/ejsp.465>
- Lyubomirsky, S., King, L., & Diener, E. (2005). The benefits of frequent positive affect: Does happiness lead to success?. *Psychological Bulletin, 131*(6), 803-855.
- Marcia, J. E. (2002). Identity and psychosocial development in adulthood. *Identity: An International Journal of Theory and Research, 2*(1), 7-28.
- Martinescu, E., Peters, K., & Beersma, B. (2022). What Do We Talk About When We Talk About Others? Evidence for the Primacy of the Horizontal Dimension of Social Evaluation in Workplace Gossip. *International Review of Social Psychology, 35*(1), 13:1-12.
- Maslow, A. H. (1943). A theory of human motivation. *Psychological Review, 50*(4), 370-396.
<https://doi.org/10.1037/h0054346>
- McClelland, D. C. (1961). *Achieving Society*. New York: Simon and Schuster.
- Mitchell, V., & Helson, R. (1990). WOMEN'S PRIME OF LIFE Is It the 50s?.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14*(4), 451-470.
- Muuss, R. E. (1996). Erikson's theory of identity development. In *Theories of adolescence* (pp. 42-57).
- Paulhus, D. L., & Trapnell, P. D. (2008). Self-presentation of personality. *Handbook of Personality Psychology, 19*, 492-517.
- Peeters, G. (2007, June). Good and bad for self and other: From structural to functional approaches of fundamental dimensions of social judgment. In *Small Group Meeting on Fundamental Dimensions of Social Judgment: A View from Different Perspectives*, Namur (pp. 7-9).
- Preston, S. H. (1984). Children and the elderly: Divergent paths for America's dependents. *Demography, 21*, 435-457.
- Pyszczynski, T., Greenberg, J., Solomon, S., Arndt, J., & Schimel, J. (2004). Why do people need self-esteem? A theoretical and empirical review. *Psychological Bulletin, 130*(3), 435-468.
- Realo, A., & Dobewall, H. (2011). Does life satisfaction change with age? A comparison of Estonia, Finland, Latvia, and Sweden.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45*(3), 297-308.
- Richards Jr, J. M. (1966). Life goals of American college freshme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13*(1), 12-20.
- Riley, M. W., Johnson, M., Foner, A., Clausen, J. A., Cohn, R., Hess, B., Merton, R. K., Nelson, E. E., Parsons, T., Platt, G., Ryder, N. B., Schrank, H., Starr, B. C., & Zuckerman, H. (1972). *Aging and Society, Volume 3: A Sociology of Age Stratification*. Russell Sage Foundation.
- Ritter, J. O., & Freund, A. M. (2014). Values across adulthood: A neglected developmental construct guiding thought and action over time. *The Oxford Handbook of Emotion, Social Cognition, and Problem Solving in Adulthood, 273-287*.
- Roberts, B. W., & Robins, R. W. (2000). Broad dispositions, broad aspirations: The intersection of personality traits and major life goal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6*(10), 1284-1296.
- Robins, R. W., Trzesniewski, K. H., Tracy, J. L., Gosling, S. D., & Potter, J. (2002). Global self-esteem across the life span. *Psychology and Aging, 17*(3), 423.
- Rogers, L. O. (2018). Who am I, who are we? Erikson and a transactional approach to Identity Research. *Identity, 18*(4), 284-294.
<https://doi.org/10.1080/15283488.2018.1523728>
- Rokeach, M. (1973). *The Nature of Human Values*.

- New York: Free press.
- Rokeach, M., & Ball-Rokeach, S. J. (1989). Stability and change in American value priorities, 1968-1981. *American Psychologist*, *44*(5), 775.
-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 Rosenberg, M., Schooler, C., Schoenbach, C., & Rosenberg, F. (1995). Global self-esteem and specific self-esteem: Different concepts, different outcome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60*(1), 141-156. <https://doi.org/10.2307/2096350>
- Rosow, I. (1978). What Is a Cohort and Why? *Human Development*, *21*(2), 65-75. doi:10.1159/000271575
- Ryan, R. M., & Deci, E. L. (2000). Self-determination theory and the facilitation of intrinsic motivation, social development, and well-being. *American Psychologist*, *55*(1), 68.
- Ryder, N. B. (1985). The cohort as a concept in the study of social change. In *Cohort analysis in social research: Beyond the identification problem* (pp. 9-44). New York: Springer New York.
- Saragovi, C., Koestner, R., Di Dio, L., & Aubé, J. (1997). Agency, communion, and well-being: Extending Helgeson's (1994) model.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3*(3), 593.
- Schwartz, S. H. (1992). Universals in the content and structure of values: Theoretical advances and empirical tests in 20 countries. In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Vol. 25, pp. 1-65). Academic Press.
- Schwartz, S. H. (1994). Are there universal aspects in the structure and contents of human values?. *Journal of Social Issues*, *50*(4), 19-45.
- Schwartz, S. H. (1999). A theory of cultural values and some implications for work. *Applied Psychology*, *48*(1), 23-47.
- Schwartz, S. H. (2007). Basic human values: Theory, measurement, and applications. *Revue Française de Sociologie*, *47*(4), 929.
- Schwartz, S. H., & Bilsky, W. (1987). Toward a universal psychological structure of human valu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3*(3), 550.
- Schwartz, S. H., & Bilsky, W. (1990). Toward a theory of the universal content and structure of values: Extensions and cross-cultural replic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8*(5), 878.
- Shamir, B. (1986). Self-esteem and the psychological impact of unemployment. *Social Psychology Quarterly*, *49*(1), 61-72.
- Smith, R. H. (2000). Assimilative and contrastive emotional reactions to upward and downward social comparisons. *Handbook of Social Comparison: Theory and research*, 173-200.
- Smith, R. H., Parrott, W. G., Ozer, D., & Moniz, A. (1994). Subjective injustice and inferiority as predictors of hostile and depressive feelings in envy.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0*(6), 705-711.
- Sowislo, J. F., & Orth, U. (2013). Does low self-esteem predict depression and anxiety? A meta-analysis of longitudinal studies. *Psychological Bulletin*, *139*(1), 213.
- Spence, J. T., Helmreich, R., & Stapp, J. (1975). Ratings of self and peers on sex role attributes and their relation to self-esteem and conceptions of masculinity and femininit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3*(1), 29-39. <https://doi.org/10.1037/h0076857>
- Srivastava, S., John, O. P., Gosling, S. D., & Potter, J. (2003). Development of personality in early and middle adulthood: Set like plaster or persistent chang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4*(5), 1041.
- Suitner, C., & Maass, A. (2008). The role of valence

- in perception of agency and communion.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38(7), 1073-1082. <https://doi.org/10.1002/ejsp.525>
- Tabachnick, B. G., & Fidell, L. S. (2007). *Using Multivariate Statistics* (5th ed.). New York: Allyn and Bacon.
- Tang, F., Chen, H., Zhang, Y., & Mui, A. C. (2018). Employment and life satisfaction among middle-and old-aged adults in China. *Gerontology and Geriatric Medicine*, 4, 1-8.
- Trapnell, P. D., & Paulhus, D. L. (2012). Agentic and communal values: Their scope and measurement.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94(1), 39-52. <https://doi.org/10.1080/00223891.2011.627968>
- Walker, L. J., & Frimer, J. A. (2015). Developmental trajectories of agency and communion in moral motivation. *Merrill-Palmer Quarterly*, 61(3), 412-439.
- Wiggins, J. S. (1979). A psychological taxonomy of trait-descriptive terms: The interpersonal domai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7(3), 395-412.
- Wiggins, J. S., & Pincus, A. L. (1992). Personality: Structure and assessment. *Annual Review of Psychology*, 43(1), 473-504.
- Wojciszke, B., & Białobrzaska, O. (2014). Agency versus communion as predictors of self-esteem: Searching for the role of culture and self-construal. *Polish Psychological Bulletin*, 45(4), 469-479. <https://doi.org/10.2478/ppb-2014-0057>
- Wojciszke, B., Baryła, W., Parzuchowski, M., Szymkow, A., & Abele, A. E. (2011). Self esteem is dominated by agentic over communal information.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41(5), 617-627.
- Wood, W., & Eagly, A. H. (2009). Gender identity. In M. R. Leary & R. H. Hoyle (Eds.), *Handbook of Individual Differences in Social Behavior* (pp. 109 - 125). The Guilford Press.
- World Values Survey Association. (2009). World Values Survey 2005 official data file v. 20090901. <https://www.worldvaluessurvey.org/wvs.jsp>
- Zemke, R., Raines, C., & Filipczak, B. (1999). *Generations at work: Managing the clash of Veterans, Boomers, Xers, and Nexters in your workplace*. New York: AMACOM.
- 1 차원고접수 : 2024. 02. 21.
수정원고접수 : 2024. 05. 09.
최종게재결정 : 2024. 05. 28.

Exploring Agentic and Communal Values of Koreans in their 20s and 50s

Dow-hee Kim

Taeyun Jung

Department of Psychology, Chung-Ang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d the differences in values between Koreans in their 20s ($n = 228$) and 50s ($n = 213$) in two dimensions: agency and communion. We investigated the present values of each generation, and then asked each generation what values the other generation currently seemed to pursue. In addition, those in their 20s indicated the values that they would pursue in their future 50s, and those in their 50s rated the values that they had pursued in their past 20s. We also asked participants about self-esteem and life satisfaction to see how each generation's current agentic and communal values might affect their self-esteem and life satisfaction. Results showed that those in their 20s were relatively more concerned about agentic values, while those in their 50s placed more importance on communal values. However, both generations perceived that the other generation currently held more agentic but less communal values. Furthermore,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values pursued by the current 20s and those by the 50s in their past 20s. The same was true between the values pursued by the current 50s and those by the 20s in their future 50s. Finally, communal values had a positive relationship with self-esteem and life satisfaction for those in their 20s, but for those in their 50s, agentic values were only related to better life satisfaction.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e study were discussed, and suggestions for future studies were made.

Key words : agency, communion, values, self-esteem, life satisfaction